

#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인쇄/1998년 12월 28일

발행/1998년 12월 31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북한경제사회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6 팩시밀리 901-2544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

ISBN 89-87509-53-2

7,500원

연구보고서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 강 태

민족통일연구원

#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의 경제난은 심각한 생산요소 부족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산에 투입할 원자재와 연료, 전력 등의 부족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산량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는 수출부진으로 나타나며 외환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생산요소의 부족현상을 가중시킨다. 이처럼 악순환의 함정에 북한경제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화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이 갖는 중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외무역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무역이 생산요소 공급창구로서의 기능과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 왔으며, 그 특성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변화 움직임을 통해서 대외무역정책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 1. 북한의 대외무역 인식과 정책

195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형제국가들로부터 전쟁복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과 시설을 거의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무역을 사회주의 형제국가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소련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에 우선적으로 치중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중국과 소련이 국경분쟁을 발생하면서 양쪽으로부터의 지원 및 원조가 줄어들게 되자, 사회주의 시장에 우선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보

다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무역의 다양화와 다각화'를 대외무역 발전전략으로 채택하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대규모의 설비를 무리하게 수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차관을 들여오게 되었다. 그러나 유류파동 등으로 인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됨에 따라서 외채문제가 발생하자 1970년대 후반부터는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출증대에 매진하게 된다. 또한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신용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자 신용제일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입장으로 회귀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였으며 대외무역, 특히 수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역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1980년대의 논조는 1990년대에도 지속된다. 1990년대 들어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됨에 따라서 북한은 1991년말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1992년에는 대외무역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무역체계를 도입하면서 무역관련 기구들을 개편하였으며, 1993년말에는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등 수출증대와 외국자본의 도입을 위해 진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체제의 공식적인 출범과 때를 같이 하여 발표한 헌법과 연이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김정일시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개혁·개방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는 챙기되, 개혁·개방으로 인하여 국내에 파급될 정치·사회적 불안정 문제는 사전

에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실리'와 '체제 및 정권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1990년대의 대외무역은 북한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온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거래양식에 적응하고 철저하게 변신할 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안정을 위하여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이완 현상을 단속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 2.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 및 비교우위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70년대 중반이후 심한 기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까지는 기복을 보이면서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1988년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0년대의 북한무역은 1970년대 후반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을 전 기간에 걸쳐서 살펴보면 세 번에 걸친 등락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변동은 각각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변동은 1970~1976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 1970년대 초반 서방 선진국가로부터의 수입 급증과 외채상환문제로 인한 대외무역의 위축이 그 이유이다. 두 번째 변동은 1977~1981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일련의 대중동원운동에 힘입은 수출 증대와 대중동원운동의 후유증으로 인한 대외무역량의 감소가 등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세 번째 변동은 1985~1994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 1984년 북한의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직후 북한의 대소련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1989년부터 대소련 수입이 감소한

데다가 1990년대 들어와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로 인한 무역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무역은 개방정책과 관련된 대서방 무역관계, 외채문제, 특정국가와의 정치적인 유대관계, 국제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무역상품별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수입에서는 1970년대에 기계 및 수송장비에 대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광물성 연료, 특히 코크스나 원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위탁가공용 섬유원자재의 수입증가로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에서는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와 기타 제조품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가 가장 특징적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까닭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주요 수출원이었던 철강의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기타 제조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섬유제품의 임가공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새로운 수출원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개방정책의 효과라고 판단된다. 경제난과 구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하여 대외무역이 전체적으로 위축되었으나 개방정책의 영향을 받아 수출과 수입구조가 변한 것이다.

비교우위를 통한 분석결과에서, 북한은 소비재부문에서는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소비재 수요를 경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생산재관련 상품군에서는 자본주의국가와의 교역에서만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서 북한이 비공산권 국가와의 자본재 교역에서는 수출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입에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기술수준을 보여주는 비교우위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단계에서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는 단계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경제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결정요인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대내적인 요소와 대외적인 요소로 구별할 수 있다. 대내적인 요소로는 국내 경제상황과 국가의 위상 강화나 체제안정 등의 정치적 동기를 들 수 있다. 대외적인 요소로는 주변 강대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와 남한의 정치·경제적인 상황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내의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경제발전계획 추진실적, 외채문제, 산업구조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북한의 무역실적을 살펴보면, 경제계획 실적과 수입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경제계획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 오히려 수입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외무역이 경제발전계획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북한의 외채문제는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 막아온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이 대외무역정책을 결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이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앞으로도 외환의 부족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

인다. 내부적으로는 생산요소의 부족현상을 가능한 한 국내에서 해결하고자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가능한 한 많은 경제적 지원이나 투자를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지도부의 판단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자신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들어와 대외정세는 북한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소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에서 사회주의체제가 해체되었고, 소련 및 중국은 남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는 핵문제에 의한 비난 여론이 강해지면서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된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사태전개를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또한 체제와 정권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에서 비롯된 정권의 정당성 약화 현상을 해결하는 문제와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묵인하거나 허용하였던 개혁적인 조치로 인하여 파생되는 사회통제력 약화 현상을 극복하는 문제 사이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인 요소는 주변 강대국 특히, 소련과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와 세계 정치경제에서의 정세 변화 및 남한의 정치·경제적인 상황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및 구소련과의 정치적 관계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주어 왔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중국과 소련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 및 외교관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방확대의 불가피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정권과 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보다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로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태도, 특히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선진국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소련체제가 붕괴한 뒤 미국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낸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가안보라는 정치적 목표와 경제적 지원 획득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남한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을 꼽을 수 있다. 1988년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온 남북경제협력은 그 동안 점진적이나마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관계 강화에 도움을 주어 왔다. 그러나 남한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1998년들어 남북교역은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남한의 악화된 경제상황이 북한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물론 남한의 경제상황 악화는 다른 편에서는 북한당국의 체제유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일정부분 감소시켜주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외환위기를 자신의 자주·자립적 경제체제가 우월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예라고 선전하면서 자력갱생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국내경제상황은 개혁·개방을 확대하는 쪽으로, 체제안정 및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부상황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체제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힘이 더 강하지만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이 강화되어감에 따라 점차 개혁·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전망

앞으로 북한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무역정책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무역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경제난 극복에 필수적인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를 점차 가속화시킬 것이다.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북한당국이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개방을 보다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분간은 내부정비에 주력하고 개방정책의 확대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외부세계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남한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기업들의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으며, 북한당국의 관심 또한 그 어느때 보다 높기 때문에 남북경협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남 강경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돌발사건으로 인한 경제협력사업이 냉각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해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노력은 계속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빠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것 또한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능한 한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이를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 - 목 차 -

I. 서 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및 자료 .....	3
II. 북한의 대외무역 인식과 정책 .....	6
1. 대외무역에 대한 기본 인식 .....	6
2. 대외경제정책의 특성과 변화 .....	22
3.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기구와 무역상사 .....	41
III.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 및 비교우위 .....	57
1. 무역 상대국가(군)별 특성 .....	59
2. 수출입 상품의 구조 변화 .....	77
3. 비교우위 분석 .....	94
IV.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전망 .....	118
1. 대외무역정책의 결정요인 .....	122
2. 대외무역정책 변화 전망 .....	136
V. 결 론 .....	143

참고문헌

## <표 목 차>

<표 2-1>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외무역 확대를 강조한 문헌 .....	16
<표 2-2>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해외자본 조달방법을 중심으로 .....	24
<표 2-3>	북한의 국가별 무상원조 및 차관도입 실적 .....	26
<표 2-4>	OECD국가로부터의 차관도입실적(1970~75) .....	28
<표 2-5>	북한의 외채현황 .....	31
<표 2-6>	무역법 내용 요약 .....	40
<표 2-7>	군부의 무역관련 기구표 .....	54
<표 3-1>	북한의 수입 .....	60
<표 3-2>	북한의 수출 .....	61
<표 3-3>	북한의 대외의존도 .....	76
<표 3-4>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주요 수입품목의 변화추이 .....	79
<표 3-5>	북한의 대소련 무역 상품 구성, 1962~1980 .....	80
<표 3-6>	북한의 수출상품 구성, 1982~1989 .....	82
<표 3-7>	북한의 수입상품 구성, 1982~1989 .....	85
<표 3-8>	북한의 수출상품 구성, 1990~1996 .....	88
<표 3-9>	북한의 수입상품 구성, 1990~1996 .....	91
<표 3-10>	RCA분석을 위한 상품군 분류 .....	97
<표 3-11>	RCA지수 분석결과: 1970~1986 .....	100
<표 3-12>	RCA지수 분석결과: 1987~1990 .....	104
<표 3-13>	RCA지수 분석결과: 1992~1995 .....	110
<표 4-1>	북한의 대외무역 및 개방정책 전개 과정 .....	120
<표 4-2>	북한의 경제계획기간과 수출입 증가율 .....	124

## <그림 목차>

<그림 3-1> 북한의 대외무역 변화추이 .....	57
<그림 3-2>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구)사회주의권 국가 비중 .....	62
<그림 3-3> 북한의 수입 상품별 추이 .....	93
<그림 3-4> 북한의 수출 상품별 추이 .....	93
<그림 4-1> 북한경제의 악순환고리 .....	126
<그림 4-2>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결정 경로 .....	136

## I. 서 론

### 1. 연구목적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를 기준으로 -6.8%를 기록함으로써 8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후퇴는 산업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생산저하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투자재원 부족,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난, 근로의욕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다. 계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상징되는 북한 경제난의 실상은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걸친 물자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심각한 생산요소 부족현상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생산에 투입할 원자재와 연료, 전력 등의 부족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만성적인 에너지(전력, 연료)난은 생산시설의 운전을 제한하여 결국 생산량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고, 부족한 생산능력은 수출부진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부진한 수출은 외환부족 현상을 개선하지 못하게 되고, 외환부족은 생산요소의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생산요소의 부족현상이 악화되는 것이다. 생산요소의 부족은 다시 생산감소 현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함정에 북한경제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제안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개혁·개방정책에 소극적인 북한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화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며, 외화자금 확보문제는 수출증대와 외자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북



## 2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이 갖는 중요성이 있다. 북한은 앞으로 경제회생을 위한 탈출구로 대외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북한의 대외무역부문은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경제협력사업부문과 함께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주요 고리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대외무역을 분석하는 작업은 북한경제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데 긴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대외무역 분야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무역법 제정, 신무역체계 도입, 무역제일주의 퇴조, 무역상사나 대표부 축소조정, 김정우 퇴진, 중국과의 변경무역 양성화, 무역학과 설치, 신헌법에서의 무역주체 확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이 최근에 나타난 이 분야에서의 변화조짐들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무역실적 분석작업과 서로 보완됨으로써 북한무역정책의 변화를 더욱 내실 있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외무역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무역이 생산요소 공급창구로서의 역할(수입)과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의 역할(수출)을 어떻게 수행해 왔으며, 그 특징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변화 움직임을 통해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북한의 무역정책과 제도 및 무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대외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구체적인 무역실적을 분석함으로써 무역의 주요 특징과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대외무역 실적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배경이나 양상, 그리고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IV장에서는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변화 추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를 전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앞에서 북한의 대외무역을 통해서 분석했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작업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북한의 무역 통계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무역실적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통계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으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 및 정책에서의 변화 움직임을 일반문헌이나 관계자의 전언 등을 통해서 규명하는 작업이다.

북한당국의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발행되는 1차 문헌을 활용하였으며 국내외의 2차 문헌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문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체에 밀접하게 접근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 중 대외무역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과 북한과의 교역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외 인사들을 면담하여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북한의 무역실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역통계 자료가 필요한데 1962년 이후 북한은 무역통계를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무역 상대국에서 발표한 무역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세분화되고 통일된 분류기준에 의해서 정리

#### 4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된 통계자료로 가장 방대한 양을 보유·제공하고 있는 유엔통계국의 통계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이 자료에서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각 국가의 통계집을 통하여 보완하였다.<sup>1)</sup>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구소련 지역의 대북한 무역량 통계치를 보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구소련의 무역통계집은 FTN(Uniform Foreign Trade Commodity Nomenclature) 분류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이들을 유엔의 분류방식인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분류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up>2)</sup>

각 국가의 통계집을 이용하여 유엔자료의 부족부분을 보완하더라도 통계치의 누락 분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991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이나 日本貿易協會(JETRO)가 발간하는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을 참고할 수 있다.<sup>3)</sup> 또한 1990년대 초반으로 접어들면

- 
- 1) 유엔통계국 자료는 여러모로 불완전하다. 1962년 이전의 통계치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통계치 대부분은 부분적으로 누락되어 있으며, 1990년까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었던 구소련의 경우에는 무역 통계치를 UN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빠져 있다. 1990년까지 북한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었던 중국의 경우는 1982년부터 UN에 무역통계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통계치는 제외되어 있다.
  - 2) 이와 관련하여 소련 통계치의 SITC로의 전환에 참고할 만한 서적은 다음과 같다.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COMECON Uniform Trade Classification*, I. D. E. Statistical Data Series No. 4., Tokyo: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Kostinsky, Barry L., *Description and Analysis of Soviet Foreign Trade Statistics*, FER-No. 5,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July 1974.; Marer, Paul, *Soviet and East European Foreign Trade, 1946~1969*,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2.; United Nations, *Draft Conversion Key Between the United Nations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and the Standard Foreign Trade Classification of 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nf. Eur. Stats/WG. 38/2, Geneva: United Nations, 1972.
  - 3) Lim, Kang-Taeg, 「North Korea's Foreign Trade, 1962~1992」, (New York: SUNY Albany, 1996), pp. 6~11; 최신림, 「북한의 무역구조」 (서울: 산업연구원, 1991), pp. 2~9.

서 북한의 무역량에서 남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남북교역과 관련된 자료는 통일원의 발표자료가 가장 풍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역연구에서는 통계자료 수집 및 정리와 관련한 문제들이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무역거래량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점이다. 무기와 같은 전략물자의 거래를 밝혀 내기가 힘들고 단순 수출입이 아닌 인력, 건설서비스제공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우며, 구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시혜성 거래(예를 들면, 우호가격으로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를 체결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가 힘들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국경지역에서 중국과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변경무역의 양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 II. 북한의 대외무역 인식과 정책

### 1. 대외무역에 대한 기본 인식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분석은 북한당국이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의 대외무역에 대한 시각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왔다. 물론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기별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고 많은 경우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대외무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시하는 원칙 등을 관찰해보면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시각이 주변의 환경과 대내적 필요성에 따라 조금씩이나마 변화해 왔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무역정책과 무역체도를 통하여 대외무역의 추이 및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대외무역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인 시각을 살펴보기 위해서 김일성·김정일 문헌집과 그 밖의 공식문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쟁후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경제지원에 주로 의지했던 1950년대부터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모색했던 1960년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자본재를 수입해서 경제발전을 모색하다가 대외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된 1970년대, 외채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외국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합영법을 통한 제한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시도한 1980년대, 그리고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인한 사회주의 시장의 상실로 개혁·개방을 강요받고 있는 1990년대까지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 가. 1950~60년대

195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형제국가들로부터 전쟁복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과 시설을 거의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무역을 사회주의 형제국가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소련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에 우선적으로 치중하는 대외관계의 수립을 강조한다. 김일성은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또한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이 요구되지 않은 수요품을 당장에 생산하기 위하여 거액의 투자와 노력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요품을 언제나 민주시장<sup>4)</sup>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시장에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것입니다”<sup>5)</sup>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회주의 진영내에서는 매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경제 발전의 제 가능성을 최대 한도로 리용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며 호상 원조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국제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있어서 소련으로부터의 우수한 물질적, 기술적 원조는 매개 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에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sup>6)</sup>라고 소련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였다.

195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북한은 대외무역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시장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자본주의 시장과도 무역관계를 확장할

4) 사회주의 국가 시장을 의미함.

5) 김일성,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 보고(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6차 회의, 1953.12.20~22),”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1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634.

6) 김일성, “조선 노동당 3차대회(1956.4.23~28)에서 진술한 중앙위원회 사업총결 보고,”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pp. 175~305.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진영에 속하는 국가와 친선과 상호원조관계를 맺고 그것을 강화하며(정치적 목적), 경제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경제적 목적) 수단으로 대외무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대외무역을 통해 경제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다.

1960년대 들어와서 북한은 자립경제 건설을 표방하면서 수출증대와 무역관계의 확대를 추구하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호혜·평등’의 원칙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자력갱생의 원칙 하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구하는 방편으로 대외무역을 이용하면서 여전히 사회주의시장에 일차적으로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무렵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1961년 9월에 개최된 조선 노동당 제4차대회에서 개성시 대표로 토론에 나선 리주연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sup>7)</sup> 리주연이 지적한 대외무역의 역할은, 1) 경제 각 부문에서 절실히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부족한 기계 설비와 원료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2)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구축하는데 적극 기여한다, 3) 수입을 통해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 4) 무역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이해를 촉진하며 특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성을 강화시킨다는 것 등이 있다. 대외무역을 통해서 추구하고자하는 경제적·정치적 목적이 더욱 다양하게 제시된 것이다.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었

7) 리주연,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와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사업총화 보고에 대한 토론(조선 로동당 4차대회, 1961.9.),”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제II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 265~275.

던 1950년대에는 대외무역의 역할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소극적인 수단 정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외국자본 및 물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데 반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지원은 감소하자 북한 당국은 점차 대외무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외무역에 접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60년대까지도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한 정치·경제적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대외무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하였으며,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부족한 원료와 자재, 장비 등을 공급하는 것이 대외무역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북한은 1950년대에는 사회주의 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소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대외무역 발전전략으로 삼았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소련이 국경분쟁을 발생하면서 양쪽으로부터의 지원 및 원조가 줄어들게 되자 사회주의 시장에 우선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외무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연적 조건과 기술적 조건에 따라 수출품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수출품의 종류를 다양하게 늘리며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sup>8)</sup>

## 나.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와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

8) 리주연, 앞의 글, pp. 265~275.



비사회주의 국가<sup>9)</sup>와의 교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1972년 12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은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며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의 5개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할 것”<sup>10)</sup>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발언은 1970년대 말까지 이어진다. 1979년의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늘이고 자립적민족경제를 보다 튼튼히 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널리 발전”시키고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역설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우리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에 없거나 자체로 생산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야 하며 그러자면 대외무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sup>11)</sup>라고 대외무역의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1980년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도 김일성은 무역 상대국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sup>12)</sup>

9) 1970년대 초반에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제3세계 국가 및 비동맹국가 등 후발산업국가와의 교역에 역점을 두었다.

10)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 1972.12.25~28),”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622.

11) 김일성, “인민경제의 계획규율을 강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9.12.12),” 「김일성저작집 34,」 1987, pp. 478~479.

12) 김일성,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조선 로동당 5차대회, 1980.10.10),”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335~336.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경제부문들이 매우 다양하여진 우리 나라의 현실은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며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물건들을 대외시장에 적극 내보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재때에 들여와야 합니다. .... 우리는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계속 발전시켜서 제3세계나라들, 신흥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널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외무역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1970년대 북한의 공식적인 견해는 1970년에 발간된 「경제사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sup>13)</sup> 이 사전에 언급된 대외무역의 역할은, 1)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물자들을 수입 공급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과정 촉진, 2) 외화예비 조성 및 국가축적 증대, 3) 소비품 수입을 통한 주민들의 수요 충족, 4) 사회주의국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과의 친선적인 협조관계 발전을 통한 혁명의 국제적인 연대성 강화 등이 있다.

기본적인 입장에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외무역이 수행하는 역할을 확대 해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에서 대외무역을 통해서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대외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 발전전략은 ‘무역의 다양화와 다각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1970년대 후반 대외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신용제일주의 원칙이 첨가되었다. 경제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선진기술과 시설의 도입 필요성을 느낀 북한은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확인한 남한의 경제성장에 자극을 받아 선진자본주의

13)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p. 687~689.

국가들로부터 대규모의 설비를 무리하게 수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차관을 들여오게 되었다. 그러나 유류파동 등으로 인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됨에 따라서 외채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외채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는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출증대에 매진하게 된다. 이에 무역의 다양화와 다각화라는 수출증대 전략이 강조되었다. 또한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신용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자 신용제일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 다. 1980년대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을 우선적으로 중요시하고 유무상통의 원칙 하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교류를 추진한다는 대외무역의 기본방향을 강조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입장으로 회귀한 느낌을 준다. 김일성은 1984년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과 경제기술적협조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경제활동에서 의연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 사회주의 건설이 빨리 전진하는데 따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sup>14)</sup>고 주장하였으며, 최정근(1984)과 전일준(1986)도 당의 기관지인 「근로자」를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sup>15)</sup>

14) 김일성,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 1984.1.25~27),” 「김일성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214~231.

15)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시장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통상관계를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최정근,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대외무역,”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84. 12, p. 48.; “세계사회주의시장에 선차적인의의를 부여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였으며 대외무역, 특히 수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당국이 연료나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을 증대하는 일이 절실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대외무역, 특히 수출을 확대하는 일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심지어는 경제적 자립성을 확대하는 근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6)</sup>

대외무역 확대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발언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김달현은 “현시기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강조하면서 대외무역의 역할로, 1)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발전된 기술을 널리 받아 들여 우리 나라에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으며, 3)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세계 선진수준으로 빨리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시킨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sup>17)</sup> 그는

---

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전일춘, “대의경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86. 4, p. 51.

- 16)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필수적 요구이며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수출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수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늘리는데 주되는 힘을 넣는 것은 대외무역발전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일관한 요구이다.” 김복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88. 7, pp. 61~66.
- 17)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89. 2, pp. 61~65.

대외무역의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상대의 다각화와 무역형태의 다양화'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방무역의 발전과 '변강무역,' '맞바꿈무역,' '가공무역,' '되거리무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확대,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 및 합영, 합작 사업의 강화를 촉구하였다.<sup>18)</sup>

또한 1980년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우리는 앞으로 대외무역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며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물건들을 대외시장에 적극 내보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재매에 들여와야"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며 신용제일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sup>19)</sup>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신용제일주의를 강조하였던 것은 대외신용도가 하락함에 따라서 대외무역 확대에 한계를 느낀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무역의 다각화 및 다양화의 중요성과 신용제일주의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확대에 한계를 느낌에 따라 1980년대 중반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을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면서 수입보다는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사회

18) 김달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자,"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89.9), pp. 60~65. 여기에서 언급된 무역의 형태들에 대한 북한의 「경제사전 1」(1985)의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변강무역(변방무역)은 "국가적무역이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방과 지방사이에 직접 진행하는 무역, 맞바꿈무역의 한 형식이다."(p. 605); 맞바꿈무역(바터무역)은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금액상 같은 액수의 상품을 맞바꾸는 무역거래방식, 물물교환이라고도 한다."(p. 595); 가공무역은 "원료 또는 반제품을 다른나라로부터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그것을 가공한후 다시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다른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무역형태"(p. 46); 되거리무역(중개무역)은 "수입된 상품을 가공하지 않은채로 다시 수출하는 무역의 한 형태"(p. 466).

19) 김일성, 앞의 글, (조선 로동당 5차대회, 1980.10.10), pp. 335~336.

주의 국가는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대외무역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 대외무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출이 수입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달현은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수출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이다. 수출과 수입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은 수출을 첫공정으로, 선차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다. 수출을 늘여야 그만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제때에 사올수 있으며 수입물자의 일정한 예비도 조성할 수 있다”<sup>20)</sup>고 역설한 바 있다.

#### 라. 1990년대

무역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1980년대의 논조는 1990년대에도 지속되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외무역 확대를 강조한 북한의 공식 문건들은 다음의 <표 2-1>에서와 같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1990년대 들어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됨에 따라서 북한은 1991년말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1992년에는 대외무역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무역체계를 도입하면서 무역관련 기구들을 개편하였으며, 1993년말에는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등 수출증대와 외국자본의 도입을 위해 진력하였다.

20)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1989. 2, pp. 61~65.

<표 2-1>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외무역 확대를 강조한 문헌

저자명	논문 제목	발표서적	시기	해당 쪽
김일성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	「김일성저작집」, 38, 1992	1984.1.25 ~27	214~231
김일성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무역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38, 1992	1984.2.13	232~246
최정근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대외무역	「근로자」	1984.12.	46-50
전일춘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	「근로자」	1986.4.	50-54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	「김일성저작집」, 40, 1994	1986.12.30	239~242
김일성	정무원사업을 개선하며 경제사업에서 5대과업을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41, 1995	1988.1.1	23
김복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근로자」	1988.7.	61-66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1989.2.	61-65
김달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자	「근로자」	1989.9.	60-65
한수길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	「근로자」	1991.4.	68-71
김일성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44, 1996	1992.12.14	61
조강일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방침	「경제연구」	1994.2.	11-13
최경희	현시기 대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1995.2.	50-53

또한 북한은 수출증대 방안으로 신용 축적, 합영과 합작사업 확대, 무역제일주의 준수<sup>21)</sup>, 대외시장 개척 등을 강조하고 있다.

21) 무역제일주의 방침이 요구하는 것은 수출을 우선적으로 증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외무역의 구조를 개선하고 무역거래 형식과 방법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외무역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국

김일성은 새로운 국제환경하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에 익숙한 ‘무역일군’을 많이 확보하여 “자본주의 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대외무역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른다.<sup>22)</sup> 또한 김일성은 그의 마지막 공식 문건에서 “나는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우리 나라와 경제협작 같은것을 하자고 하면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경제협작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수 있지만 경제협작을 하여도 믿질것은 없습니다”<sup>23)</sup> 라고 언급함으로써 한국과의 본격적인 경제교류 추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가 간행하는 「경제연구」에 게재된 대외무역 관련 최근 논문들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sup>24)</sup> 1996년의 서성준 논문부터는 김일성의 ‘교시’ 대신에 김정일의 ‘지적’이 주로 인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김정일의 대외무역관이 가시화 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성준은 ‘자립적 민족경

---

제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경쟁력있는 자체의 완제품, 가공품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하여 대대적으로 수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역거래 형식과 방법에서 방향전환 한다는 것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하던 무역 형식과 방법에서 벗어나서 세계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있는 거래형식과 방법을 적극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강일,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방침,”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2, pp. 11~13. 참조.

- 22) 김일성,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1992.12.14),”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6.
- 23)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결론, 1994.7.6),”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486.
- 24) “대외무역에서 신용”(장상용, 1991.4);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특징과 그 우월성”(리신호, 1992.4); “합영, 협작을 잘하는것은 대외경제관계 발전의 중요요구”(최원철, 1993.4);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방침”(조강일, 1994.2); “현시기 대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최경희, 1995.2); “국제봉사무역의 내용과 특징”(김영철, 1995.3);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주요 특징과 그 전망”(리신호, 1995.4);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자주적인 대외무역 관계발전을 위한 물질적담보”(서성준, 1996.1);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최영욱, 1997.2).



제건설로선'이야말로 대외무역에서 '평등과 호혜, 자주성의 원칙을 관철할 수 있게 하는 물질적인 담보'를 마련하여 준다고 강조하면서, 대외무역관계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기초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경제에 의존하게 되면 대외무역 그 자체는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으나 결국에는 경제적 예측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립경제 건설'에 집착하는 김정일의 대외무역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최영욱(1997)의 논문은 근본적으로 변화한 국제시장의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무역정책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김정일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사회주의시장을 기본으로 하는 무역정책을 자본주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자본주의시장을 뚫고들어가 무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sup>25)</sup>

최영욱(1997)이 밝힌 북한의 새로운 무역정책의 내용은, 첫째, 자본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을 발전시키며, 둘째, 자본주의 시장에 맞게 무역방법을 고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합하게 '무역방법을 개선'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적용되는 무역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1) 시장의 수요와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자체의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것, 2) 시장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sup>26)</sup> 3) 외화를 많이 벌어들일 것<sup>27)</sup> 등이 지적되고 있다.

25) 최영욱,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2), pp. 13~18 재인용.

26) 상품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1)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2) 유리한 기회를 찾아서 그것을 잘 이용하며, 3) 가능한 한 경쟁자가 적은 제품을 선택할 것 등이다.

27)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주의해야하는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총판매수입을 늘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수익성의 견지에서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체제의 공식적인 출범과 때를 같이 하여 발표한 헌법(1998.9.6 「평양방송」과 「중앙방송」)과 연이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김정일시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개혁·개방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는 챙기되, 개혁·개방으로 인하여 국내에 파급될 정치·사회적 불안정 문제는 사전에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정된 헌법에서 나타난 경제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기존의 변화된 현실을 수용하여 법규화한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사회단체에게 생산수단 소유 및 독자적인 대외무역을 허용함으로써 대외무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수경제시대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업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뒤이은 사설에서 자력생산을 강조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함으로써 폐쇄적인 자립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sup>28)</sup> 북한은 ‘경제적 실리’와 ‘체제 및 정권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1990년대의 대외무역은 북한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판이하게 다른 거래양식에 적응하고 철저하게 변신할 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안정을 위하여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이완 현상을 단속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

이윤을 늘리는 문제도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 2) 생산과 유통기술을 발전시켜 필수품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생산해야 한다, 3) ‘통과무역,’ ‘되거리무역,’ 중계무역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방법을 잘 이용해야 한다.

28) 「노동신문」 사설,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1998.9.9 ;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사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1998.9.17.

것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에 관한 인식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비록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중요시하는 부분을 바꾸기도 하고 대외무역에 대한 자세가 변하기도 하였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일관된 기초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대외무역의 기초는 ‘政經連繫’, ‘自立經濟建設’, ‘國家獨占’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들은 최근에 와서 변화를 겪고 있다.

‘정경연계’란 정치적인 목적이 경제적인 목적에 우선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에 우선적인 의의를 두면서 정치적 경제관계를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을 추진하되 순수한 경제관계만을 맺는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에 우선적인 의의를 두는 이유는 경제적 목적(자국민의 욕구충족)과 정치적 목적(타국과의 연대강화)을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으며 국가경제의 계획적인 운용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시장이 거의 붕괴하게 되자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관계를 맺을 상대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자립경제건설’은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여 자체의 생산요소와 기술·설비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외무역은 자립경제건설에 필요한 물자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단인 것이다. 1990년대 들어와 더욱 심각해진 경제침체속에서도 자립경제건설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자립경제건설이 오히려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다만 1998년에 발표한 새헌법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조국의 융성 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라고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을 수정하여 실

리 지향적인 경제건설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뒤이어 「노동신문」과 당 기관지인 「근로자」의 공동사설(“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을 통하여 폐쇄적인 자립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발표하여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변국들의 기대 섞인 예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은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sup>29)</sup> 밝힌 것처럼, 국가가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을 계획적으로 관·감독한다는 것이다.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은 국가가 계획한 목표에 따라 계획적으로 대외무역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도 용이하게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발표된 새로운 무역체계에 따르면 대외무역에 따른 여러 가지 재량권을 일선 무역상사에 대폭 부여하였으며, 나아가 1998년에 발표한 새 사회주의 헌법(1998.9.6)에서는 사회협동단체도 국가의 감독에서 벗어나 국가와 동등하게 독자적으로 대외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정권을 여전히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발표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 북한이 대외무역에서 실질적인 분권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북한당국이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을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한 사실은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대외무역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29) 동 헌법 제2장 경제 부분의 제34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국가독점의 원칙).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호혜평등의 원칙).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자립적 민족경제 보호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헌법은 92년 4월에 개정되었으나 대외무역 관련 조항은 별다른 변화 없이 제36조와 제38조로 분리하였을 뿐이다.

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이 그 동안 유지해온 대외무역의 기조 중에서 최근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특히 새헌법에 실린 개혁·개방적인 정책 내용이 국내에 정치·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을 경계하여, 경제의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면 외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된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립경제건설 노선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급변한 국제정세에 맞추어 대외무역의 방법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경제적 필요성과 자립경제건설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는 두 가지 목표를 쫓고 있는 모습이 북한의 실상이라고 하겠다.

## 2. 대외경제정책의 특성과 변화

북한의 경제사전은 대외무역정책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이라고 정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외무역정책으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토대 위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그 다음으로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는 것과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들고 있다.<sup>30)</sup> 이처럼 북한은 대외무역을 기본적으로 자립적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은 대외경제정책의 한 부분을 구성하면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외무역정책도 함께 변화해

---

30)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85), pp. 464~465.

은 것이다. 따라서 대외경제정책이라는 보다 넓은 범주에서 대외무역 정책에 접근함으로써 대외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고자 한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이 변화의 원인은 대내적인 요소와 대외적인 요소로 구별할 수 있다. 대내적인 요소로는 경제발전계획의 추진정도와 외환사정을 비롯한 국내경제상황 등을 들 수 있으며, 대외적인 요소로는 주변 강대국(특히 소련과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와 세계정치·경제정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변화시켜 온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개혁·개방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수립·추진되었고 변화해 왔는지를, 북한당국이 경제건설에 필요한 해외자본을 조달해 온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외국에서 필요한 물자나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경제건설에 필요한 해외자본을 조달해 온 방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단계, 사회주의 국가 위주의 대외경제정책(1950~60년대). 제 2단계,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대규모 기술·자본 도입정책(1970년대). 제 3 단계,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우선의 무역확대정책(1980~90년대). 여기에서 3번째 단계인 투자유치 및 무역확대정책은 다시 제도개선(합영법)을 통한 외자유입정책(1980년대 후반부터), 제한적 경제개방(경제특구)을 통한 외자유입정책(1990년대 초반부터), 자본주의권 시장에서의 적응정책(1990년대 중반부터)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2-2>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해외자본 조달방법을 중심으로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사회주의국가 위주의 대외무역정책: 주로 유·무상 원조에 의존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차관도입정책: 기술·자본의 수입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수출) 확대정책	
			합영, 합작을 통한 외자도입정책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도입정책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적응정책	

**가. 사회주의 국가 위주의 대외무역정책(유·무상 원조에 의존): 1950~60년대**

해방 이후 북한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서 제공된 경제원조에 크게 의존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대외경제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한 경제원조는 유무상 금융지원과 건설지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북한이 1960년까지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받은 재정원조는 17억6백만달러에 달하며 그중에서 12억7천8백만달러(75%)가 무상으로, 4억2천8백만달러(25%)가 유상으로 제공되었다. 특히 무상원조는 모두 1950년대에 제공된 것으로 북한의 전후복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1950년대까지의 유무상 원조의 75%가 소련(45%)과 중국(30%)으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지원 역시 대부분 중국과 소련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총 59개의 공장과 산업시설이 신설, 복구, 확장되었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6개 대상을, 소련이 27개 대상을 지원하였던 것이다.<sup>31)</sup>

31) 1950~60년의 기간동안 중국은 대안전기, 평양방직기계, 해주시멘트, 평양담

소련이 주도한 사회주의권의 대북 경제지원은, 1960년대 말까지 북한이 이룩한 외형적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었다. 먼저 대외경제관계를 사회주의 국가들에만 의존함에 따라 세계시장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문제점들이 북한 땅에 이식됨으로써 비능률과 비효율이라는 원천적인 약점을 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상원조는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중·소간의 이념분쟁과 중국의 문화혁명의 여파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유상원조 역시 상당부분 감소하였다. 중·소간의 분쟁이 발생하자 북한은 일단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 뒤 양쪽을 오가는 등거리외교(시소) 정책을 통하여 실리를 챙기려 하였으나 의도했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중국의 문화혁명은 두 가지 방향에서 1960년대 후반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악화시켰다. 하나는 중국의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져 북한과 정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홍위병의 김일성 비난으로 인하여 양국간의 정치적 관계가 상당기간동안(1966~1969) 냉각된 것이다.

---

배공장 등 6개 대상에, 소련은 수풍발전소, 김책제철소, 평양정밀, 홍남비료, 2·8 시멘트, 평양종합방직, 신포수산물가공 등 27개 대상에,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중기계, 평양목재가공, 승호리시멘트, 평양도량형기, 덕천자동차, 운산공구 등 26개 대상에 대한 건설지원을 제공하였다.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p. 659. 참조.



<표 2-3> 북한의 국가별 무상원조 및 차관도입 실적  
(단위: 만달러)

		1949년 이전	1950~60	1961~69	1970~76	1978~84	총계
합 계	무상원조	-	127,800	-	-	25,870	153,714
	차관	5,300	37,492	33,668	214,960	29,615	321,035
	합계	5,300	165,336	33,668	214,960	55,485	474,749
소 련	무상원조	-	51,475	-	-	-	51,475
	차관	5,300	19,850	19,668	90,600	29,615	165,033
	합계	5,300	71,325	19,668	90,600	29,615	216,508
중 국	무상원조	-	33,600	-	-	25,870	59,470
	차관	-	17,250	10,500	160	-	27,910
	합계	-	50,850	10,500	160	25,870	87,380
기 타 사회주의국	무상원조	-	42,769	-	-	-	42,769
	차관	-	392	3,500	-	-	3,892
	합계	-	43,161	3,500	-	-	46,661
OECD국	차관	-	-	-	124,200	-	124,200
	합계	-	-	-	124,200	-	124,200

출처: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86.

이들 국가들의 경제원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북한은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을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북한 지도부는 점차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에 치중하면서 추진해 온 대내지향적 공업화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둔화되기 시작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선진 기술·설비 도입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무역 상대국의 다각화와 서방국가로부터의 기술 및 자본의 도입 등을 비롯한 무역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정치의 자주성 확립과 경제의 자력갱생을 근간으로 하는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 소련을 포함한 외국과의 경제관

계를 스스로 제한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거래에서의 마찰로 때때로 정치적인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sup>32)</sup> 이에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외협력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포함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 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차관도입정책(선진 기술·자본 도입):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중공업 위주의 자력갱생이라는 경제성장 전략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설비와 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자원조달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서방 선진국가들에게서 도입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제1차 6개년계획(1971~1976)에 착수하면서 자본재와 기계·설비 및 기술들을 일본을 위시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선진 서방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차관도입을 통해서 조달하였다.<sup>33)</sup>

32) 나탈리아 바자노바, 「기रो에 선 북한경제」,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pp. 14~15; 나탈리아 바자노바에 따르면, 북한은 실행 불가능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비철금속이나 귀중품은 서방시장에 팔고 사회주의 국가에는 형편없는 재품을 수출하기도하여 신용을 잃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마찰이나 무역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자신들에 대한 부당한 외부압력 행사로 간주하였다고 한다.

33) 1970~76년의 기간동안에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은 21억4천9백만 달러로 이중 12억4천2백만달러(57.8%)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제공되었으며, 같은 기간동안에 소련은 9억6백만달러(42.2%) 그리고 중국은 160만달러(0.0%)를 제공하였다.

&lt;표 2-4&gt; OECD국가로부터의 차관도입실적(1970~75)

(단위: 만달러)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합계
금액	300	1,700	20,400	37,500	40,000	24,300	124,200

출처: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86.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국내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외 경제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며, 기존의 폐쇄적인 대외 경제정책노선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확대 및 자본도입을 위한 대외개방정책의 초기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서의 변화는 1970년대 초기에 조성되기 시작한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와 맞물려 더욱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류과동과 주력 수출품인 비철금속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무역수지의 악화로 무역적자 폭이 심화되자 지불능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외채를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는 외채문제가 대두되어 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도입이 중단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경제계획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외환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1975년 북한의 외채는 약 20억달러에 달했는데 서방 국가로부터 13억달러,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7억달러의 외채를 안고 있었다. 1975년 북한의 총무역량이 20억달러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액수가 북한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문제로 인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후반이후 감소하게 된다.

1970년대 말부터 북한은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수입 확대를 위하여

대외무역정책에서 약간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대외무역 다변화 조치와 무역관련 제도의 보완정책이 그것이다. 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외채문제가 대외무역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상당한 무역흑자를 실현하였으며, 대외무역 전담회사와 대외거래 지원을 위한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등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1970년대 말부터 북한당국은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의 초점은 무역확대를 통한 무역량의 증가와 무역거래선의 다변화, 신용 개선, 수출품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두어졌다.

#### 다. 외자유치와 무역(수출)확대정책: 1980~90년대

1970년대 말부터 교역의 다각화와 다양화를 통한 수출증대를 적극적으로 강조해 온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 획득이라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외채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산업협력과 자연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및 합영기업 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였다.

1980년대 중반 대외무역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타난 북한 대외경제정책에서의 변화는, 채무불이행문제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경제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개선하는 양면정책을 시도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교류 확대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은 1984년 1월에 개최된 제7기 제3차 최고인

민회의에서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김일성이 발표한 연설문에서 향후 5~6년내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액을 현재의 10배로 증가시키겠다고 결의한데서 잘 나타나 있다.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북한의 노력은, 김일성이 경제개발을 위한 과학기술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소련과 동유럽 국가를 방문(1984.5~6)한 것과 장성산 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을 방문(1985.12)하여 무역 및 경제협력 발전에 관한 협정서(1986~1990년의 기간)를 체결한 것<sup>34)</sup>, 그리고 중국과 장기무역협정(1987~1991년의 기간)을 체결(1986.9)하여 무역량을 25% 증가시키기로 한 사례들에서 쉽게 발견된다.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관계 발전을 통하여 대외무역, 특히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외국과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협력, 자연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및 합영기업 등을 도입하게 되었다. 북한은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확대하고 채무상환의 부담이 없는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대외무역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채는 <표 2-5>에 나타난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무역(수출)확대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도록 만들었다.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에서 무역량을 3.2배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설정한 사실과 ‘무역 제일주의’와 ‘새로운 무역체계’에 잘 나타나 있다. 199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회의에서 북한 지도부는 제3차 7개년계획의 실

---

34) 자세한 내용은 나탈리아 바자노바, 앞의 글, pp. 67~70. 참조.

&lt;표 2-5&gt; 북한의 외채현황

(단위: 백만달러)

		1981	1985	1989	1991	1994	1997
사회주의권	소련	700	1,240	3,140	5,820	10,660	11,900
	중국	330		900			
서방권	서방채권은행단	630	2,220	880	3,460		
	일본	340		530			
	서독	230		350			
	프랑스	200		230			
	오스트리아	200		200			
	스웨덴	160		150			
	기타	210		500			
합계	3,000	3,460	6,780	9,280	10,660	11,900	

출처: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통일원, 「북한경제종합평가」, 각년도;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년도.

패를 자인하고 향후 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한 뒤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무역제일주의원칙'을 천명하면서 "대외무역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리며 이부문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외무역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sup>35)</sup>하자고 촉구하였다.

또한 1992년 초에는 '새로운 무역체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국가 무역기구가 전담하던 대외무역을 모든 생산단위들로하여금 독자적인 무역기구를 갖추고 직접 세계시장에서 무역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무역체제'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산자들이 대외 무역에 직접 참여하는 무역방법이라는 것으로, 이 체제를 통해서 북한은 "대외무역의 발전을 통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를 발전"<sup>36)</sup>

35) 조강일,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방침,"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2), pp. 11~13.

36) 리신호, "새로운 무역체제의 본질적특징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4), pp. 30~32. 리신호가 제시한 새로운 무역

시키고자 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악화되어 가는 외채문제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수출증대를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 외화도입을 위해서 1980년대 중반에는 합영법을, (2) 1990년대 초반에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였으며, (3) 최근에는 자본주의 시장에 적합한 무역방법으로 무역양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각의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문제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1980년대 이후 북한이 외자도입과 경제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무역(수출)확대정책을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 (1) 합영법을 통한 외자유입정책: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줄어든 데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외채로 인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자, 상환부담도 없고 개방으로 인한 정치적 위험도 없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1984년 9월 8일 합영법을 제정·공포한 이후 북한은 ‘외국인소득세법(1985.3.7),’ ‘합영회사소득세법(1985.3.17),’ ‘합영법시행세칙(1985.3.20),’ ‘외국인소득세법세칙(1985.5.17),’을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여

---

체계의 장점으로는, 1) 대외무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우월한 무역체계이고, 2) 수출입물자에 대한 관리가 개선되며, 3) 생산과 대외무역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데 탁월하고, 4)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하고, 5) 사회주의 나라들은 물론이고 발전도상국들이나 자본주의 나라와의 무역을 보다 잘 발전시킬 수 있게 하고, 6) 국가경제에서 생산자들이 무역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과 형식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등이 있다.

건을 조성하였다.

북한은 합영법을 통하여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합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했으나 그 동안 실제로 유치된 합영사업의 대부분이 재일 조총련기업들로부터의 소규모 투자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합영법 제정 이후 1993년 말까지 성사된 합영사업은 총 144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투자액은 불과 1억5천만달러에 머물고 있다.<sup>37)</sup> 이처럼 북한은 외국과의 합영, 합작이라는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개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이 합영, 합작에 실패한 이유는 낮은 국제신용도,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및 패쇄적인 정치·사회 환경 등과 같은 열악한 투자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의 국제적 환경도 북한에 유리하게 움직여주지 않았다. 1980년대 말부터 동구 및 소련에서 진행되었던 정치·경제부문의 개혁의 여파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게 되자 국제적인 고립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특히 소련의 해체는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대외교역 상대국이자 경제적 지원국을 상실하게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화의 조달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자금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추진되었던 제3차 7개년계획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90년대 초부터 대외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기 위하여 무역의 활성화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37) 김상겸, 「북한의 교역현황과 대외경제정책」,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0), p. 69.



하였다. 즉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고 야심찬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북한은 합영, 합작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원철은<sup>38)</sup> 합영·합작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첫째, 합영·합작은 국가와 국민들 간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신뢰와 신용을 두텁게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외화를 버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셋째,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

또한 북한은 최근 조총련의 대북 합영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조총련 측에 합영사업의 독자성을 살리는 등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영사업을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sup>39)</sup> 이에 따르면, 조총련과 북한 당국은 1996년 10월초 평양에서 합영전담회사인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제9차 이사회를 열어 그 동안의 합영·합작사업이 '쌍방간 기업관리방식의 차이,' '북한 측의 투자 및 무역 관행 이해부족,' '생산·판매·노무관리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나친 관여,'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침체에 빠졌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개선방안에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볼 때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합영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북한당국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합영, 합작기업의 독자성을 살리고 중요한 운영상의 문제는 조총련과 협의하며 계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생산된 제품은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북한 근로자의 노임은 국가규정을 고

38) 최원철, "합영, 합작을 잘하는것은 대외경제관계 발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1993.4, pp. 18~20.

39) 조선일보, "조총련, 합영사업 독자성 강화," 1996.12.1.

려하되 해당기업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일본 기술자의 북한 체류기간이나 북한 기능공의 일본 연수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 등이 있다.

## (2) 제한적 경제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정책: 1990년대 초부터

외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은 1991년 12월에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 제한적이거나 대외개방을 표방하는 정책을 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나섰다. 그 후속조치로 북한은 1992년 10월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을 공포한 후 외국인기업법(92.10), 자유경제무역지대법(93.1) 등 1998년 1월말 현재 50가지가 넘는 외자유치관련 법규와 제도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외국의 자본유치에 필요한 법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이라는 책자에 따르면,<sup>40)</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장에서 북한은 세계 여러 나라와 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과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영토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가 발표된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진선봉지역의 개발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북한의 나진선봉 개발 계획은 애초에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18년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려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 69억8천9백만달러의 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40)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pp. 7~12.

외국인 투자유치가 부진하여(1995년말까지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은 약 6백3십만달러에 불과하였음) 당초의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되자, 1995년 북한은 계획을 변경하여 당면단계와 전망단계, 2단계로 재조정하였다. 새 개발계획에서는 1단계 2000년까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면서 국제화물중계기지 및 수출가공기지 건설과 관광기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1~2010년의 다음 단계에서는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현대적인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sup>41)</sup>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실적도 규모나 건수 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1996년 7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투자촉진세미나에서 김일성대학의 김수용교수에 따르면, 1996년 6월까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계약건수는 49건으로 계약금액은 3억5천만달러에 이르나 실제로 이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22개 투자사업에 3천4백만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42)</sup>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1997년말까지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에 투자된 금액은 8천7백3십3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3)</sup> 1996년 6월까지 이 행된 투자의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투자가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부문(40%)과 운수, 상업센터, 호텔, 은행 등 서비스부문(58.3%)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부문(1.6%)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4)</sup>

41) 북한대의협력추진위원회,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 1996.

42) 김수용,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의 우수성에 대하여」, 한세정책연구원, 「북한경제」, 1996.9, p. 55.

43) 이 금액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두만강 대삼각주지역에 투자된 총액 8억6천8백만달러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같은 기간에 중국의 연변지역에는 4억1천만달러, 러시아의 프리모스키에는 3억7천만달러가 투자되었다. UNIDO 서울사무소 내부자료 참조.

44) 이지형, 「나진·선봉지대 외국인 투자진출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북한 당국은 1996년 6월부터 나진선봉지역에서 다양한 개혁·개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개혁·개방프로그램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i) 법률과 규정 보완: 나진선봉지대와 관련하여 1998년 11월말 현재까지 발표된 법률이나 규정은 50여가지인데 최근에는 ‘주식회사법,’ ‘보세가공구법,’ ‘금융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sup>45)</sup>

(ii) 유통통화의 일원화와 환율의 현실화: 지대내에서 국내통화(북한원)만 유통시키고 환율을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1998년 말 현재 200원/1달러 정도에서 교환되고 있다.

(iii) 개인기업의 설립 허용과 공영기업에 대한 독립채산제 도입: 실업자 및 농한기의 농민이 가내자영기업을 설립해 몇 가지 분야<sup>46)</sup>에서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국영기업 및 지방소유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의 손익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였다.<sup>47)</sup>

(iv) 자유교역시장 개설: 1997년 6월 6일에 중국과의 교역을 겨냥한 자유교역시장이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원정리에 개설되어 매주 3~4일 열리고 있다.

(v) 인재육성: UNDP와 UNIDO의 자금 및 기술지원으로 기존의 ‘나진해운대학’을 ‘나진대학’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추진, 이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한뉴스레터, 1997.8, p. 2.

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등을 둘러싼 최근 움직임,” 『북한뉴스레터』, 1998.2, pp. 14~17.

46) 대상분야는 일용피복, 가공식품, 가정용품 및 가구, 수공제품, 지방산품, 폐품이용제품, 잉여농산물, 여관, 수선 및 운송업, 주택건축업, 음식업, 행상, 어업 등.

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나진·선봉지구 경제활성화 노력강화,” 『북한뉴스레터』, 1997.10, pp. 12~13.

‘나진과학기술대학’의 설립도 계획 중에 있다.

(vi) 인프라 정비 및 신설추진: 도로 신설 및 포장공사, 주택건설, 철도운영체계 재편성(나진철도공사 신설), 새로운 해운항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sup>48)</sup>

또한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조성 작업과 함께 최근 외자도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북한은 1997년 8월 18일까지 총 37건의 투자안건을 UNIDO에 제시하고 외국기업의 대북한 투자협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sup>49)</sup>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이 외자도입 프로젝트 중에서 31건이 합작생산프로젝트이며 총투자액은 17억1천4백만달러에 달한다. 이들을 지역별로 보면, 나진선봉지대에 26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평양, 사리원, 남포 등 7개 도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들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천만달러 이하의 비교적 소액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형투자에 주저하고 있는 외자를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 (3) 자본주의 무역시장에의 적응정책: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 외환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무역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무역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추어 자본주의 시장을 주 대상으로 무역을 발전시키며 자본주의 시장에 적합하게 무역방법을 개선한다

4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앞의 글, pp. 12~13.

4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외자도입위한 움직임 활발,” 「북한뉴스레터」, 1997.9, pp. 11~12.

는 것이다. 새로운 국제환경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무역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부문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적용되는 무역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취한 정책 중에서는 눈에 띄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에 능숙한 ‘무역일군’을 많이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하도록 하여 어려워진 국제환경을 극복하고 대외무역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과, 1998년 3월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대외무역을 규제하는 법규인 ‘무역법’을 들 수 있다.

새로운 국제환경하에서 대외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각 대학에 대외경제 무역학과를 설치하고 외국학자들을 초빙, 시장경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50)</sup>

대외무역의 체계와 질서 및 무역회사 설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법’은 총 5장 5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의 <표 2-6>에 요약되어 있다.

북한은 ‘무역법’을 발표하면서 “무역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sup>51)</sup> 실제로는 대외무역을 규제하는 법적인 통제장치가 없이 마구잡이로 무역을 함에 따라 대외무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대외무역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어울리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무역법’을 채택한 목적은 무역상대국과 교역품목을 다양화함으로써 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난의 와중에서 이완

50) 경향신문, “대학마다 대외경제 무역학과 설치,” 1997. 1. 22.

51) 북한 중앙통신, 1998.3.24.

<표 2-6> 무역법 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제 1 장 무역법의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법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제도와 질서를 엄격하게 확립</li> <li>- 대외시장 확대 및 무역수지의 균형 보장</li> <li>- 경제발전에 공헌</li> </ul> </li> <li>○무역에서 지켜야할 원칙과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의 다각화와 다양화 추구</li> <li>- 수출품의 품질과 납기일을 보장, 대금의 적시 지불로 신용확립</li> <li>- 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무역 수행, 국가의 수출입 허가질서를 준수</li> </ul> </li> </ul>
제 2 장 무역회사 의 지위와 설립·관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회사의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지위는 수출입 활동의 담당자</li> <li>- 독립채산제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거래 수행</li> <li>-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li> </ul> </li> <li>○무역회사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li> </ul> </li> <li>○무역회사의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회사가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 이행</li> <li>- 해당기관은 체결된 계약의 심의 책임</li> </ul> </li> </ul>
제 3 장 무역계획 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계획 작성 원칙적 요구와 집행상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과 수입계획, 무역화물 수송계획과 수출품 생산계획 작성</li> <li>- 무역화물 수송계획은 품종별, 수송 수단별, 구간별로 나누어 년별, 분기별, 월별로 수립</li> </ul> </li> </ul>
제 4 장 수출입 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입 허가기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 및 해당문서 검토후 승인여부 결정</li> <li>- 승인연장 및 변경절차 관할</li> </ul> </li> <li>○수출입 허가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매년 수출입 허가지표목록을 작성, 공포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수출입 허가</li> <li>- 수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무역회사는 수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수출입 업무 수행</li> </ul> </li> <li>○수출입 물자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해당 문서와 계약서를 검토한 뒤 반출입 승인</li> </ul> </li> </ul>
제 5 장 지도·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지도체계 규정</li> <li>-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로 하여금 수출품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을 확대시킬 것을 규정</li> <li>- 해당기관이 무역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적시에 정확히 시행하는 일에 대해 규정</li> </ul> </li> </ul>

출처: KOTRA, “북한의 무역법 해설,” 「북한뉴스레터」, 1998.5, pp. 14~16.

된 무역질서를 체계화함으로써 무질서와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대외 무역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시

에 이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방법과 형식에 의거하여 무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산업기반이 상당부분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들도 고갈되어 수출 잠재력이 크지 않은 실정이고,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획기적인 개혁·개방정책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외자유치나 외환획득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또한 대외무역을 통한 외환획득이나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외자도입에 성공하고 급변한 국제정세에 적응하여 대외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북한당국 20년이 넘게 강조해 온 신용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며, 이러한 작업은 기업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차원에서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쪽 무역상사의 신용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의 신뢰도 역시 무기판매, 마약거래, 위조지폐 생산 등으로 파생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노력 또한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 3.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기구와 무역상사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1992년 초 이른바 '새로운 무역체계'를 발표하면서 대외경제와 관련된 기구를 개편하였다. 먼저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를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 두어 대외경제위원회로 하여금 대외경제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한편 과거 비수교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대외창구였던 국제촉진위원회에는 전반적인 대외교역의 촉진, 교류 및 조정의 기능이 부과되었으



며, 외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대외협력추진위원회는 나진선 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을 담당하도록 결정되었다.

‘새로운 무역체계’가 발표된 후, 대외경제 관련 부서들의 기능조정과 함께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대외무역 추진의 다원화 내지는 무역권한의 분산화현상이다. 즉 대외무역 업무의 권한을 정무원의 각 위원회, 부, 도 행정단위에 부여하여 수출품 생산자가 자체계획을 세워 직접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결과 생산을 담당하는 지방단위 기관도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 아래서 독자적인 대외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부분적인 권한의 하부이양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분권화 조치라기보다는 무역업무의 분산화조치에 가깝다고 하겠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변경무역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북한내 통제체계의 미비로 인한 무역기관간의 경쟁과열과 대외무역 관계자들의 외환착복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새로운 무역체계’ 발표에 따른 또 다른 변화는 정무원 산하의 ‘대외경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대외경제 정책 특히 무역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최고 행정기관으로 승격시켜 기존의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를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이 ‘대외경제위원회’는 정무원내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되는 국가무역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대외경제부문 관련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과의 경제협력관련 각종 협정 체결,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 사업 추진, 무역관련 전반 업무, 해외시장 조사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sup>52)</sup>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에 맞추어 1998년 9월 6일 새로운 헌법의 발표와 함께 대대적인 정부기구 개편을 단행하면서

52) 통일원,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 1997, p. 17.

대외무역관련 조직과 기능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였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내각에 대외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무역성을 두고 그 책임자로 강정모를 임명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며, 1998년 11월 현재 몇 가지 변화만이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1) 기존의 대외무역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 있으며, (2)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아시아태평양위원회로 창구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3) 대외경제위원회는 완전히 폐지되어 무역성으로 개편되었으며, (4) 무역성내에 조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들과의 합영·합작사업 등 제반 경제사업과 그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협조관리국'을 신설하여 국장에는 김용술을 임명하였으며<sup>53)</sup>, (5) 대외경제위원회 산하기관이었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존속 혹은 개편 여부는 아직 검토 중<sup>54)</sup>이라는 것이다.

정부기구 개편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헌법(1998.9.5) 발표 이전에 북한의 대외무역조직과 무역상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가. 대외무역 관련조직 및 기구

새헌법 이전에 북한에서 대외무역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는, 당노선과 정책수립 및 수행을 조직·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차원의 최고지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대외정

53) 조선신보, 1998.11.11.

54) 임을출, "9.9 김정일新체제 출범이후의 남북 경협 동향," 「통일경제」, (서울: 경제사회연구원, 1998.10), pp. 34~38.

책위원회'가 있으며 중앙인민위원회의 정책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정무원 산하의 '대외경제위원회'가 있었다.<sup>55)</sup> 북한내의 모든 무역상사의 수출입 업무는 원칙적으로 '대외경제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무원뿐만 아니라 노동당과 인민무력부에서도 산하에 독자적인 무역상사를 두고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sup>56)</sup>

### (1) 행정기관의 무역조직

1992년 새로운 무역체계가 발표되기 전에는 정무원 산하에 '대외경제위원회,' '대외경제사업부,' '무역부' 등 3개 정부 부서가 국가독점 무역을 지탱하고 있었으나 1992년 말 이후 '대외경제위원회'가 이를 통합하여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부상하였다.<sup>57)</sup> 국가계획위원회의 무역계획국에서 결정한 무역계획에 의거하여 수출입을 총괄하였던 '대외경제위원회'는 산하에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를 두고 있었으며 직속기구로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조선경제발전위원회'와, 집행기구인 '대외경제협력총국'을 두고 있었다.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미수교 국가를 포함한 외국과의 통상·합작·투자 등의 경제협력분야에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기 진행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함으로써 외국과의 경

55) 통일원,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절차」, (서울: 통일원, 1997), p. 39.

56) 외화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의 각 기관들은 자체경비와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무역상사를 설립하여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57) 신헌법에 따른 정부기구의 개편으로 대외경제위원회는 완전히 폐지되어 무역성으로 개편되었으며, 신설된 무역성은 기존의 대외경제위원회의 업무였던 외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각종 협정의 체결, 외자유치 및 합영사업 추진, 무역관련 업무 등을 맡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협력관계를 촉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였으며, 조선경제발전위원회는 북한의 경제부문별 시스템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이를 새로운 형태로 개조·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대외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였다.

집행기구인 '대의경제협력총국'은 '조선대의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조선경제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로서 산하에 민족개발지도국, 나진·선봉지도국, 국제합영국, 그리고 국제협력국을 두고 있었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는 가장 나중에 개편된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의 대남경제관계 담당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대남관계를 주도했던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가 한국기업들의 방북에 따른 초청과 수수료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외경제위원회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대남경제 관련 창구의 역할은 '조선광명성경제연합회'가 떠맡았으며 이 연합회의 북경대표부가 북한의 남한창구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58)</sup> 이 광명성연합회가 현대그룹의 방북 및 경제협력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각된 '민경련(회장: 정운업)'으로 개명한 것이라고 하는데,<sup>59)</sup> 최근에는 노동당 외관단체인 아시아태평양위원회(위원장 김용순)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60)</sup>

무역부는 대외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무역 및 통상에 관한 모든 실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무역정책 및 계획 수립,

58) 권오홍,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체계," 『통일경제』, 1998.6, p. 73.

59)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무원이나 대외접촉창구가 경제협력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60)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대남 민간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단일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경제실무나 교류실무를 맡는 '실무기구'가 아닌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정책기구'라는 것이다. 실무기구로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들 수 있다.

외국과의 무역협정체결 등 대외무역의 전반업무를 관장하고 국가계획위원회와 무역상사를 상호 연결시켜주며 타부서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무역부는 직속기관으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다수의 집행기관 및 무역상사를 두고 있으며 주요 무역상대국에 무역대표부를 파견하고 있었다.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미수교 국가를 포함한 외국과의 경제·무역관계를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상공회의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 관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역부 산하기관 중에서 '북남경제교류협력국'은 남한과의 거래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노동당 산하 무역상사인 '광명성무역총국'과 '대성무역총국' 산하에 무역회사를 설치하고 대남 교역 사업을 수행하였다.

대외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외경제사업부'는 1970년대 초 산업시설·장비 및 플랜트 등의 수입과 관련한 시장조사와 시장개척 등을 위해서 무역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 산업설비 등의 해외시장조사와 수출입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대외경제사업부'는 직속기관으로 비상설기구인 '조선대외과학기술교류협의회'와 다수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었다. 이 '조선대외과학기술교류협의회'는 외국과의 기술·과학·정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였다.

북한에서 지방의 무역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도·시급 지방단위에서는 '행정경제지도위원회'내에 '무역처'를 두고 대외무역을 추진하였다. 이 무역처는 관내의 대외무역을 지도하는 무역지도기관으로서 중앙기관인 무역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 급의 지방단위에서는 무역처를 따로 두지 않고 대신에 해당 도의

무역기관을 통해서 대외무역을 추진하는 '외화벌이사업소'가 있었다. 이 외화벌이사업소는 관내에 산재한 수출자원을 개발하여 외화를 벌어들인데, 지역상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지방 무역조직들은 중앙의 무역조직에 비해 매우 허술하며 신뢰도가 낮은 편이어서 북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사조의 유입경로로 작용하여 사상이완 현상을 확산시킴에 따라 북한당국이 최근 외화벌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폐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노동당과 인민무력부 산하의 무역조직<sup>61)</sup>

북한은 정무원 이외에도 노동당과 인민무력부 산하에 별도의 무역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들 무역조직들은 정무원의 경우 처럼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는 않으며, 경제관련 부서들이 자체의 인원과 조직을 통해서 대외무역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노동당의 경우는 비서국 산하기관인 통일전선부, 재정경리부, 군사공업부, 간부부, 국제부 등이 산하에 무역상사들을 설립하여 대외무역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재정경리부의 직속기관인 '39호실'에서는 주로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한의 최고 무역상사인 '대성무역총국'처럼 자체적으로 금광과 은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과의 주요 교류품목이기도한 금, 은, 아연 등은 현금대체 상품으로 취급되어 상당부분 당의 주도하에서 거래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민무력부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인 호위총국, 후방총국, 외화관리

61) 노동당의 경우에는 신헌법 이후 단행된 정부기구 개편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미쳤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등의 부서가 산하에 무역상사를 가지고 대외무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참모부 예하의 군단 급에서도 '34부' 관할하의 무역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4월 인민무력부내 외화벌이 회사들에 대한 기구개편을 단행, 대외무역을 총괄할 '44부'를 신설하였다. 이 44부는 인민무력부 전체의 외화벌이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지도와 총화를 담당하는 최고 실무기관이다. 이 44부에는 인민무력부안 각 국 산하 무역상사들을 직접지도할 뿐만 아니라 군단과 군중, 병종 사령부에 있는 34부를 통해 이 단위들에 있는 무역회사들의 사업까지도 모두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sup>62)</sup>

'매봉무역회사,' '룡악산무역상사' 등을 통해서 무기류를 포함하여 일반 상품까지 폭넓게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 군부의 대외무역 실적은 북한 전체에서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sup>63)</sup>

#### 나. 기관별 무역상사 현황<sup>64)</sup>

북한의 무역상사는 "외국과의 상품수출입거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상업기관"이라고 1970년판 「경제사전」에서 정의되고 있는데,<sup>65)</sup> 1985년판 「경제사전」에서는 '무역상사' 대신에 '무역회사'라는 용어를 거의 동일한 성격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무역회사는 "외국과의 상품

62) 최주환, "자립명분 돈벌려다 부패만 번져," 「WIN」, (서울: 중앙일보사, 1996. 9), p. 177.

63) 권오홍,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체계," 「통일경제」, 1998.6, p. 74.

64)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북한의 무역제도 및 상사디렉토리」, (1994), pp. 101~198와 통일원,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 (1997), pp 17~116을 참조.

65)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p. 694~695.

수출입거래를 전문으로 담당 수행하는 상업기업소”라는 것이다.<sup>66)</sup> 북한에서 무역회사(상사)는 국가 무역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자로서 국가의 지도와 통제하에서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거하여 외국과의 수출입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영기업소인 것이다. 북한의 무역상사는 전문 무역상사와 종합상사 두종류로 구분되는데 종합상사는 ‘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산하에 다수의 방계회사를 거느리고 있다.<sup>67)</sup>

무역회사(상사)의 공식적인 업무로는, 수출입계획 초안 작성과 수출입 계획의 수행, 외국 무역기관과의 개별계약 체결, 수출품 생산기업소나 수입품 수요기업소와의 공급계약체결, 상품인도 및 인수에 따른 외화 및 내화결제, 수출에서의 수익성제고와 유통비 절약, 상품시장동태 조사연구, 거래할 무역기관의 신용상태조사 등이 있다.<sup>68)</sup>

무역회사(상사)는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영활동이 중요하며, 국가로부터 고정재산과 유동자금을 제공받는 대신에 이윤의 일부를 국가기업 이익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국가독점의 속성상 무역편차금(수출입품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은 국가가 전액 보상해주거나 회수한다는 것이다.

법인으로서 북한의 무역회사는 다른 나라의 무역상사·회사들과 계약체결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즉 무역회사가 자기 채무에 대한 물질적인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98년 3월 ‘무역법’을 발표하여 무역회사의

66) 앞의 글, 1985, pp. 572~573.

67) 이 총회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아버지-자식 회사’라는 구조를 통해서 군소회사와 연관을 갖는 경우도 있다.

68)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앞의 글, (1985).



설립과 관련한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그 동안 법적인 통제장치 없이 난립한 무역회사의 설립과 문란해진 무역질서를 체계화, 무질서와 낭비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모든 무역상사는 원칙적으로 정무원 산하의 대외경제위원회가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과 군부의 주요 기관들이 무역상사를 소유하고 각자가 독립채산방식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대외경제위원회가 수출입허가를 통해서 대외교역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통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 정무원 산하 무역상사 현황

정무원 산하 행정기관들은 공식적으로 무역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외경제위원회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부서들이 필요에 따라 무역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대표적인 무역상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앙인민위원회: 고려무역회사(도자기, 그림, 수공예품 수출), 월명산무역회사(기계류 수출입).
-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능리888무역상사(가방 및 장식품, 식료품, 비철금속 광물 등 수출; 가방 등의 제조설비 및 관련자재 수입; 한약재, 아연피 등의 대남반출).
- 국가보위부: 신흥무역회사(무연탄, 농수산물, 공구류 및 공예품 수출; 통신설비, 각종차량, 기타 잡화류 등 수입; 면타올 등 남북교역).
- 정무원: 건재무역회사(건축자재의 수출입; 시멘트의 대남반출), 남양무역회사(비철금속 및 기타 원자재의 수출입).

- 대외경제위원회: 봉화총회사(농산물, 의류 및 미술품 수출; 전자제품과 일용품 수입; 의복가공 등의 임가공무역을 비롯한 합영·합작사업), 삼천리총회사(의류, 기계류, 화학 및 기계제품의 수출입; 의류의 임가공과 기타 품목 대남 교역, 96년 말 조선광명성총연합회에 통폐합됨), 제1, 2설비수출입상사, 석탄무역상사.
- 사회안전부: 동흥무역회사(수산물과 비금속광물 등 수출; 기계류와 어망, 전기 기기 등 수입; 면타올과 찻잔받침 등 대남반출; 양잠, 양어, 지질탐사, 광산개발분야 등의 합영·합작 추진), 대보무역회사
- 경공업위원회: 은하무역총회사(의류 및 자수제품 수출; 직기 및 미싱, 면사 등 경공업 관련 원료 및 설비 수입; 의류제품 임가공으로 남북교역, 섬유분야에서 합영·합작), 경공업무역회사, 평양담배수출입회사(담배의 수출과 담배제조 설비 등 수입; 담배총국 소속).
- 금속공업부: 흑색금속수출입회사(각종 강재, 강판, 강관류 및 합금강 등 수출; 코크스 및 제철관련 설비와 원료 등 수입; 빌레트 및 선철, 열연코일 등의 남북교역).
- 대외봉사총국: 옥류무역회사(수산물, 농산물, 약초류 등 수출; 청량음료, 담배, 식용 등 수입; 면타올, 수예품, 각종 주류의 남북교역)

## (2) 노동당 산하 무역상사 현황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당의 지도를 받는다는 점에서 당소속의 무역상사들의 활동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당소속 무역상사들은 노동당 산하의 비서국내의 부서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정경리부 산하의 '39실,' 통일전선부 산하의 '광명성무역총국'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 재정경리부: 직속기관으로 외화벌이 전문 부서인 39호실과 건설을 위한 건설국이 있으며, 만경무역회사(건설기계 및 관련자재, 텔레비전, 피아노 등 수입), 묘향무역회사(건설자재, 어구, 잡화류 등 수입) 등을 직영하고 있다.
  - \* 39호실은 대성무역총회사(10개의 무역상사와 조선대성운수회사 등 5개의 수산업 관련상사 그리고 10여개의 외국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성은행을 소유)라는 북한 최대의 종합무역회사와 락원무역총회사(합영·합작 위주의 회사로 금광, 수산물 가공, 금융합작, 식당, 상점 등을 운영), 모란무역회사(각종기계 및 설비, 무연탄과 타르크 등의 광산물, 마그네시아크링커 등 수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통일전선부: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부서로 광명성무역총회사(의류의 임가공과 한약재 등의 대남 반출; 삼천리무역상사, 대동무역상사, 광명성무역회사 및 광명성경제합작회사 등을 두고 있음)와 장미무역회사(인삼화장품 수출; 경공업품, 전자제품, 목재, 비료, 유류 등 수출입)를 운영하고 있다.
- 중공업부: 은덕무역총회사(각종 선반 등 공작기계 및 공구, 자동차 등의 수송기계, 강재, 비철금속 광석 및 제품 등 수출입; 아연피 등 남북교역)와 은덕은행이 있다.
- 기계(군수)공업부: 직속기관으로 99호 중앙지도소조라는 무기수출 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릉수출입상사(각종 전기제품, 일용품, 수공업품, 경공업품 등 수출입; 플로피디스크 등 남북교역)와 창광신용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 \* 99호 중앙지도소조: 수출용 무기생산을 관리하고 수출입 업무

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제2경제위원회 대외경제총국 소속인 룡악산무역총회사를 무기수출과 관련해서는 직접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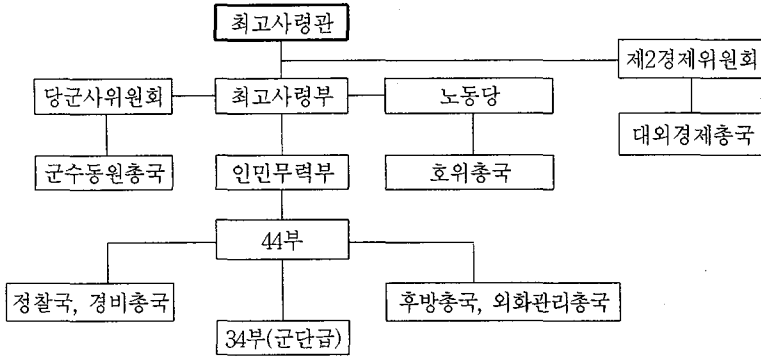
- 간부부: 산하에 당조직지도부가 직영하는 대양무역상사가 있다.
- 국제부: 산하에 영광무역회사가 있다.
- 평양시당위원회: 룡라도무역총회사(농수산물, 광천수·오리털등의 의복류, 시멘트등의 생산설비 수출; 신덕샘물, 금강홍삼술, 아연괴, 한약재, 오리털 및 의복류 남북교역)와 창광무역회사(주류, 광천수, 도자기, 유리제품, 의료품, 오리털, 기타 각종 일용품 수출입)를 운영하고 있다.

### (3) 군부의 무역상사 현황

군부내의 외화벌이 사업은 1986년까지는 '26부'라고 불리는 매봉무역회사가 인민군대 전체 무역회사들의 수출입을 모두 담당하였으나, 1987년 그동안 금·은·동·아연 등 유색금속 생산만을 전담하던 '25국'을 '25총국'으로 승격시키면서 인민무력부 전체 수출입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후 1989년 오극렬이 인민무력부장에서 해임되면서 매봉으로 다시 수출입업무가 환원되었다가 무역회사간의 불화가 확대되면서 대대적인 기구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95년 무력부 안에 '44부'를 신설하여 대외무역에 대한 계획작성과 집행을 위한 사업지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 제2경제위원회: 산하기관인 대외경제총국이 룡악산무역총회사(화학제품, 기계·공구류, 전기·금속제품, 잡화류 등 수출입)를 운영하고 있다.
- 군수동원총국(당 군사위원회 직속기관): 군수 관련 비축품을 관리하는 부서로, 어은무역회사를 직영한다.

<표 2-7> 군부의 무역관련 기구표



- 외화관리총국: 국가계획위원회내에서 군관련 예산을 다루는 군수계획국에 계상되지 않은 자금은 9국(인민무력부 외화국으로 군부대의 일반외화별이 자금을 관리)과 용악산은행(병기수입자금관리은행)이 관리.
- 호위총국(형식상 당소속기관): 김정일을 비롯한 고위층과 주요 기관을 호위하는 기관으로, 칠성무역회사(특수차량, 종이, 인쇄기계류의 수입)를 운영.
- 국방경비총국: 은파산무역회사(귀금속, 농수산물 수출)
- 경찰국: 비로봉무역회사(광물제품, 수산물, 약초 등 수출; 전자제품, 어로용 자재 수입; 떡갈나무잎, 면타을 남북교역).
- 44부: 매봉무역총회사(비철금속 및 동 제품, 선철, 금·은 세공, 보석제품, 농수산물, 미술품 등 수출; 식량, 식용유, 광업장비,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입; 아연피 등 광산물, 농수산물 등 남북교역), 진주무역상사(각종 보석류 수출), 모란상사 등을 직접 관리한다.

- 34부: 군단 급에서 운영되는 무역회사로는 용성무역회사, 부흥무역회사(금·은·아연 등 광산물, 수산물 및 송이버섯 수출; 각종 차량 및 관련 설비·자재 수입; 냉동 수산물 남북교역) 등이 있다.

#### (4) 최근의 변화

북한의 무역기관들, 특히 무역상사들은 빈번하게 통·폐합되기 때문에 이들과 거래를 하는 무역업체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상품별로 수출입 전담무역상사가 있었으나 최근 독립채산제가 확대되어 왔으며, 각 기관들이 외화획득을 통한 물품구입과 경비확보를 위하여 대외무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공장이나 기업소와 연계하여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고 원자재 및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상사들이 증가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외화부족이 심화되면서 국가가 각 기관들에게 필요한 외화를 공급하지 못하고 스스로 조달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권력기관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최대한 이용하여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현상이다. 이들 기관들은 무역상사를 통하여 외화를 벌어들여 자체경비 및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경제건설자금이나 심지어는 정치자금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역상사간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부문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났는데, 부패와 부정이 만연해진 것이다. 각종 이권을 챙기고 부족한 교통수단을 확보하며 부족한 원자재를 동원하여 공장 가동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진되면서 고질적인 상납구조가 형성되고 부문간의 비협조가 고착되어 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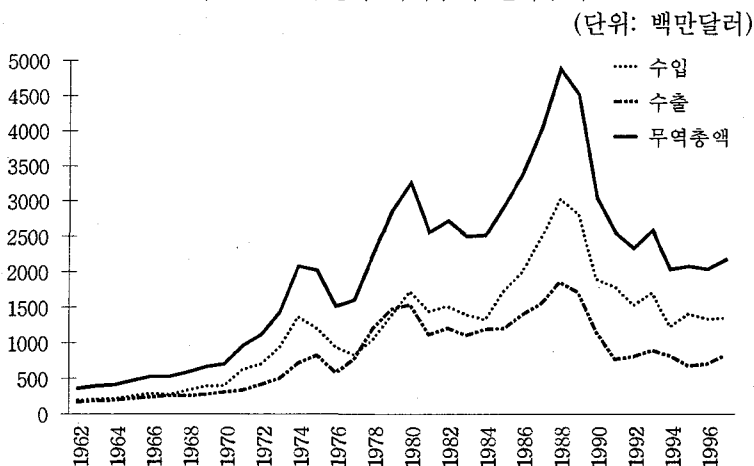
이에 북한당국은 '무역일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작업을 추진하

여 상당수 부패 관료들을 숙청하였으며, 여러 기관에서 운영해온 소규모 '외화벌이 사업소'를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다”는 이유로 대부분 폐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시에 대남경제사업에 있어서도 창구를 노동당의 외곽단체인 아시아태평양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정책 결정을 맡김으로써 대남경제사업에서 당의 지도를 강화해가고 있다.

### III.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 및 비교우위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70년대 중반이후 심한 기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대외무역은 1980년대 말까지는 기복을 보이면서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1988년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1990년대의 북한무역은 1970년대 후반 수준으로 후퇴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대외무역을 1988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을 상승기라고 하고 이후를 하강기라고 했을 때, 상승기에는 두 번에 걸친 커다란 변동을 거친 뒤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 주었으며 하강기에는 가파른 추락이후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어느 정도의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 북한의 대외무역 변화추이





북한의 대외무역을 전 기간에 걸쳐서 살펴보면 세 번에 걸친 등락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변동은 각각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변동은 1970~1976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 1970~1974년 동안의 가파른 상승은 서방 선진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무리한 대규모 수입추진으로 인하여 서방국가로부터 막대한 외채를 지게된 북한은 유류파동 등을 이유로 1974년부터 외채상환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후 북한경제의 발목을 잡게 되는 이 외채문제로 인하여 1975~1976년 동안에 북한의 대외무역은 위축되는데 특히 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두 번째 변동은 1977~1981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1978~1980년에 걸친 가파른 상승은 대부분 수출의 호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1978년과 1979년의 수출증대로 북한은 무역사상 유일한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100일전투”와 같은 일련의 대중동원운동에 의해서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대중동원운동의 후유증이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량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수출의 감소가 1981년에 나타난 무역량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81~1984년 동안 정체현상을 보인 대외무역은 1985년을 시발점으로 하여 세 번째 변동을 맞게 된다.

세 번째 변동은 1985~1994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 1985~1988년 사이에 걸친 급격한 무역량 증가는 1984년 북한의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직후에 발생하였다. 1985년부터 북한의 대소련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대소련 수입 증가에서 비롯된 무역량 증가는 1989년부터 대소련 수입이 감소하면서 다시 급감하게 되는데 1990년대 들어와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로 인한 무역감소가 북한의 무역기반을 잠식하면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1970년대 후반 수준까지 무역량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무역은 개방정책과 관련된 대서방 무역관계, 외채 문제, 특정국가와의 정치적인 유대관계, 국제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북한의 무역 상대국가별 비중과 무역 상품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크게 1990년대 이전과 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대외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 절에서는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비교우위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 1. 무역 상대국가(군)별 특성

북한의 대외무역을 국가별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먼저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권에 해당되는 국가들 중에서 구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은 1990년 이후 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회주의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나 분석의 편의와 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0년 이후에도 사회주의권의 국가로 분류하였다. <표 3-1>, <표 3-2>, <그림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대한 무역의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수출과 수입 모두 사회주의권 국가에 주로 의지해 오다가 197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온 것을 알 수가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중의 확대는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확대를 통해서 나타났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 확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 증대를 통한 비중 확대 경향은 1990년대 들어서 사회주의권 시장이 붕괴되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對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증대되어 나타났다가보다는 對(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대한 수출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는 북한에게 수혜적인 교역조건으로 거래하던 형제국가들의 상실을 의미하며 특히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의 수출이 제한 받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표 3-1> 북한의 수입

(단위: 천달러)

년도	기타 사회주의 국가*	중 국	소 련**	사회주의 국가*	선진국 ***	개도국	일 본	자본주 의 국가	총 계
1965	24449	97010	89778	2112370	20692	773	18158	39623	250860
1970	44643	60880	230000	335523	26059	7638	25681	59378	394901
1975	142351	284060	249067	675478	275613	49720	197689	523021	1198499
1980	152807	374230	432932	959969	137368	215969	411736	765072	1725041
1985	111018	238041	850390	1199449	100675	166312	271789	538777	1738226
1990	276273	358159	554125	1188557	248414	260974	193490	704184	1892741
1991	6597	524783	213070	744450	492589	303062	246392	1042043	1786493
1992	22314	541108	249810	813232	192782	276289	245672	714743	1527974
1993	37777	602340	316793	956911	201601	304356	239210	745168	1702078
1994	27893	424495	116925	569312	228537	239170	186958	654665	1223977
1995	24620	486037	77750	588407	241282	300826	278413	820521	1408928
1996	10506	497014	43583	551103	259964	274626	249557	784147	1335250
1997	11300	534680	81301	627281	247352	274583	196684	718619	1345900

출처: 유엔통계국의 무역자료; 1962~1981년 사이의 중국자료는 「中國經濟年鑑」  
참고; 1962~1990년 사이의 구소련자료는 *Vneshniaia torgovlia SSSR* 참고;  
그 외 부족한 부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참고.  
참고: \* 1991년 이후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을 포함; \*\* 소련의 경우도 1991년  
이후에는 구 소련권 국가들(CIS)을 포함; \*\*\* 선진국은 UN의 분류에서  
산업화된 국가(Industrial Countries)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포함.

&lt;표 3-2&gt; 북한의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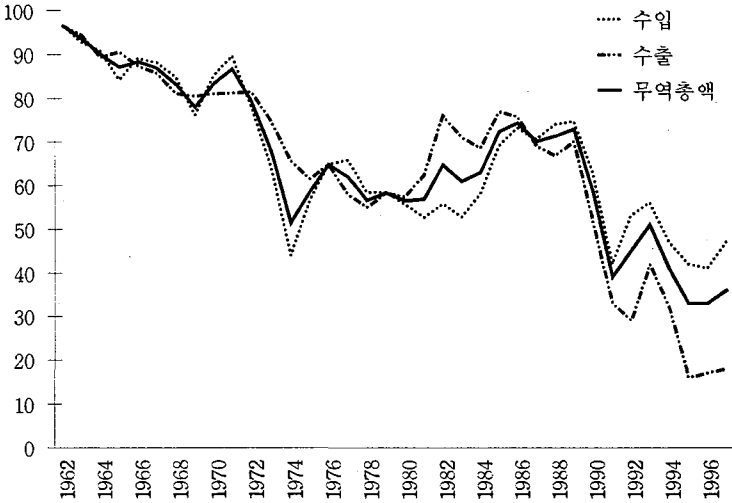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년도	기타 사회주의 국가*	중 국	소 련**	사회주의 국가*	선진국 ***	개도국	일 본	자본주 의 국가	총 계
1965	26283	83250	88333	197866	5048	2436	13385	20870	218736
1970	58925	54200	135889	249014	18534	9074	31288	58895	307909
1975	99411	197810	205867	503088	80585	177554	59078	317216	820304
1980	152540	303340	427368	883248	160105	334519	162810	657434	1540682
1985	131596	267470	525195	924260	28669	116951	134811	280431	1204691
1990	82573	124576	382750	589899	95394	176491	272984	556030	1145929
1991	14895	85666	153916	254477	104138	151310	254943	510391	764868
1992	18364	155463	58680	232507	127910	211937	232079	571926	804432
1993	25272	297294	47061	369627	113729	178851	225617	518197	887824
1994	13483	199219	43742	256444	102873	164950	287954	555777	812221
1995	16452	63609	24164	104225	82790	176694	307846	567330	671555
1996	14613	68638	32760	116011	104414	218598	262233	585246	701257
1997	12903	121610	18063	152576	90635	303656	279436	673726	826302

출처: &lt;표 3-1&gt;과 동일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구)사회주의권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비중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서의 개방정책과 사회주의권의 주요 국가들인 (구)소련 및 중국과의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아 왔다.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식 개방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개방정책의 추이에 따라서 자본국가들, 특히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량이 변한 것이다.

<그림 3-2>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구)사회주의권 국가 비중  
(단위: %)



또한 사회주의권의 강대국인 소련 및 중국과의 정치·경제적인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무역량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왔는데, 이들 국가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소련 및 중국과의 정치·경제적인 관계변화가 무역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무역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소련 및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북한의 개방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가. 1990년 이전

### (1)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대외무역

1960년대 초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정치적 자주성을 확보하고 중소 양국으로부터 경제·군사원조를 획득하고자 한 북한은 중소간의 분쟁을 자신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념적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점차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특히 1962년 10월의 중국·인도 국경분쟁에서 중국을 지지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 때에는 소련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면서 친 중국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1962년부터 1964년의 기간동안 북한이 보여준 친중국적인 태도는 대외무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련과의 교역은 정체된 반면에 중국과의 교역량은 계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북한이 중국과 밀착한 대가는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원조 삭감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북한의 7개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손실은 중국과의 무역증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만회되었다. 특히 1965년과 1966년에 북한과 중국간의 무역량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교역량 증가는 1965년 중국의 대사회주의국가 교역량이 절반으로 감소한 가운데서 나타난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역량의 증가는 1961년 7월 11일에 체결된 「상호원조와 협력을 위한 우호조약」에 따른 것이다.<sup>69)</sup>

1964년 10월 14일 흐르시쵸프 실각 이후 평양과 모스크바의 사이

69) 나탈리아 바자노바, 「기रो에 선 북한경제」,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p. 223.

는 급속하게 개선되어 갔다. 이후 소련은 북한에 대해 군사·경제원조를 재개했으며, 그 결과 북한과 소련간의 교역량은 1965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양국간의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국은 1966년 6월 20일에 상호물자공급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양국은 교역량을 1965년에 비해 80% 증액하고 물자의 종류와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sup>70)</sup>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개선은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를 냉각시켰으며, 그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도 196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과 1969년에 가파른 하락을 보인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1969년에 이르러서는 1966년 수준의 절반이하로 감소하였다.

1969년 11월의 닉슨독트린으로 촉발된 데탕트의 등장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중국 역시 문화혁명을 마무리하고 나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개선은 소련과의 관계를 약간은 소원하게 만들었으나, 과거처럼 소련과의 관계가 파탄단계로까지 가는 지 않도록 북한 지도부는 조심하였다. 1969년 이후 신냉전기가 시작하는 1979년 이전까지 북한의 대중국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반면에, 1969년~1978년의 기간 동안 소련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비중이 1969년의 14%에서 1978년에는 20%로 증가한데 반해 소련의 비중은 50%대에서 25%대로 하락한 것이다.<sup>71)</sup>

70) 앞의 글, p. 98.

71) 그러나 1969년부터 1971년까지 북한의 대소련 교역량은 절대량과 상대적 비중 모두에서 눈에 띄는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련이 북한의 공업 완제품 수입을 늘리기로 하였으며 1971~1975년 동안의 무역에 관한 협약에서 과거 5년간의 실적의 2배에 해당하는 물품을 상호공급하기로 규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 1975년에 거래된 물품은 1970년의 수준에 비해 별다른 증가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소련의 비중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북한이 서방국가와의 무역에 치중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서방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면서 북한은 그들의 수출조건을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계시장의 가격이 등락함에 따라 수출구조를 재조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북한의 수출품 중에 특정품목의 국제시장가격이 상승하면 북한은 소련에 대한 공급계약을 무시하고 이들 품목을 주로 유럽과 일본에 수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패하였으며, 북한은 또 다시 소련과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6년 2월 북한과 소련은 1976~1980년 사이의 물품 상호공급과 대금지불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 협약에서는 5년간 물품거래를 40% 늘리고 공급물품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1978년 후반부터 1981년까지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개선되었으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 진다. 이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중국의 정책에 대한 북한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sup>72)</sup> 그 결과 1981년의 교역량은 소련의 경우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수준까지 증가한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19%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981년 이후 북한이 대내외적인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과 유대강화를 시도하고 중국도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함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다시 밀착되었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은 1981년 말경부터 일련의 수녀급

---

며,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소련이 차지한 비중도 1970년의 51%에서 1975년에는 23%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앞의 글, p. 99 참조.

72) 구체적인 예를 들면, 1979년의 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군사 침공, 1978년의 일본과의 평화우호조약 체결, 1979년의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그리고 모택동 격화운동 등이 있다.



인사들을 평양으로 보냈으며, 이에 화답하여 김일성은 1982년 9월 중국을 7일간 공식 방문하게 된다. 김일성의 중국 방문으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인정받았으며, 상당량의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약속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중국에 밀착하면서도 소련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1982~1984년에 걸쳐 소련에게 부채상환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는 1983년 10월에 발생한 랑군 폭파사건을 계기로 균열이 생겨났다. 이 폭파사건에 대한 공식 논평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반면에 소련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하고 미안마 당국의 발표는 무시함으로써 북한의 편을 들어 준 것이다. 북한과 소련의 관계개선은 1984년 5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때부터 북한은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특히 소련과의 친선과 단합을 강조하였다. 1985년 12월 북한은 소련과 1986~1990에 걸친 기간 동안의 무역 및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양국은 해당기간동안 교역액을 과거 5년간에 비해 2.7배 증가시키기로 약정하였다.<sup>73)</sup> 이에 따라 북한과 소련간의 교역은 증가했으며 북한의 무역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4년에는 34%에 불과했던 것이 1987년에는 50%를 상회하게 된다. 북한과 소련간의 교역은 1988년에 최고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반면에 중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에 20%에서 13%로 감소하게 된다. 소련에 대한 접근으로 북한이 중국에 지불하게된 대가는 1984년부터 1986년에 걸친 외채상환인 것으로 판단된다.

73) Far Eastern Affairs, 1986, No. 3, p. 188, 나탈리아 바자노바, 앞의 글, p. 106에서 재인용.

## (2) 자본주의권 국가와의 대외무역

1960년대까지의 북한의 대외정책은 정치에서는 자주를, 경제에서는 자립을 추구해 왔다. 1960년대 초반 중소간의 분쟁이 격화되자 북한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주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정책이 가져다준 결과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경제·군사원조가 격감하거나 일시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무상원조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제1차 7개년 계획(1961~1967)에 차질이 생겼으며 3년의 기간이 연장되고서야 계획이 종료되었다.

새로운 환경이 주어진 196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은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군수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을 수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외화획득 증대가 필요함을 점차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북한은 서방국가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대서방 국가 교역은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는 수출품목이 미미하였고 수입에 필요한 외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무역거래에 필요한 은행거래 관행에 생소하였던 것이다. 보다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정치적 요인은 미국 측에 의해 주도되어 온 대북한 제재조치라고 할 수 있다.<sup>74)</sup>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는 북한의 대서방 교역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1960년대에 나타난 북한의 대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증대는 그 대부분이 일본을 비롯한 선진공업국과의 교역에서 비롯되었으며, 평양의 대서방세계 개방의 서막을 여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친 뒤

74) 1951년 5월 유엔은 북한과의 통상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으며, 1952년에는 대북한 금수품 규정 이외에도 높은 관세를 비롯한 제재조치들을 추가한 것이다.

에 북한은 최초의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이 추진한 ‘북한식 개방정책’은 1970년대 초를 전후하여 나타났다.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국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세계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방 선진국과의 교역을 점차 합법화시켜 나간 것이다.<sup>75)</sup> 북한의 ‘개방정책’에 힘입어 대서방국가와의 교역은 1970년대 초반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의 배경에는 경쟁상대인 남한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인지하고, 이를 따라 잡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는 기대하기 힘든 선진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북한 지도부의 절박성이 있었다. 따라서 자체자원을 이용한 ‘주체공업’의 건설을 기본목표로 삼았던 6개년 계획(1971~1976)을 대폭 변경하여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본과 설비의 도입선을 서방선진국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sup>76)</sup> 그 결과 1971년에 1억3천만달러로 그 비중이 13.5%에 불과하던 북한의 비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교역이 1974년에는 10억달러로 48.7%까지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출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차관 및 설비도입으로 인하여 무역적자가 누적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1974년 이후 북한은 외채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당시 북한은 1971~1975년 사이 집중적으로 도입한 차관으로 1975년에 가서는 12억4천만달러에 달하는 대서방권 외채를 지게 되었다.<sup>77)</sup> 예상치 못했던 외채문제로 타격을 받

75) 북한은 1960년대 후반 들어 프랑스와 대표부를 교환하고, 오스트리아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였으며, 핀란드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1973년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1974년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와 1975년에 포르투갈과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교역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여 1973년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영국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였다.

76) 최주환, 『북한경제론』, (서울: 대왕사, 1992), p. 191.

77) 통일원, 『'92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2), p. 231.

은 북한의 대외무역은 1975년 이후에 상당히 위축되는데, 그 이유는 대서방국가들에 대한 외채상황이 지연되면서 북한의 대외신용도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북한과 무역 거래하던 기업들의 관심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재촉하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북한이 상환연기를 요청하자 이들 국가들이 북한과의 거래규모를 축소하고 북한에 제공하려던 무역차관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다.<sup>78)</sup> 그 결과 북한의 대서방 선진국과의 교역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서방 선진국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개도국 교역은 수출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눈에 띄게 증가한데 반해서, 수입의 증가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부족한 외환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개도국과의 교역이 경화를 벌여 들일 수 있는 유일한 자금원이었던 셈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과의 거래가 활발했던 국가는 일본과 서독 정도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은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거의 중단하였다. 그러나 서방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평양의 노력은 끈질긴 것이어서 채권국과의 상환교섭을 통하여 이자를 낮추고 기한을 연장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하였으며, 서방 선진국과의 교역량 증대에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최신기술, 공업시설 및 긴급한 원자재를 주로 구입하였으며, 외채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수출은 최대화하고 수입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외화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간(1977~1979년) 동안에는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sup>79)</sup> 수출확

78) 나탈리아 바자노바, 앞의 글, p. 255.

79) 북한은 해당 기간동안 3억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누릴 수 있었다.

대·수입축소 정책을 통한 무역흑자는 곧바로 한계에 직면하여 1980년에는 무역적자로 반전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외채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방국가들로부터 필요한 기술과 설비 및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것은 외채부담이 없는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 외국과의 합영사업을 대규모로 유치하여 이를 토대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합영법을 제정한 뒤, 1985년에는 후속조치로 합영법 시행세칙, 합영회사 소득세법과 동법 세칙, 외국인 소득세법과 동법 세칙을 발표하였으며 1989년에는 완전사유 합영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북한은 합영법 도입 이후 조총련계 기업 및 구소련 기업과의 합작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으나 서방 선진국 기업들과의 합작투자에는 거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0)</sup> 따라서 북한이 합영을 추진하면서 의도하였던 서구의 선진기술과 자본의 도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합영법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치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이유는 제반법규의 미비 등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미성숙과 남북한간의 긴장상태 지속으로 인한 투자심리의 위축, 그리고 경제관리체제의 경직성과 관리능력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대외무역량은 급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나,<sup>81)</sup> 합영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같은

80) 1993년말까지 북한이 국내에 유치한 합영기업은 144건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 92.4%에 달하는 133건이 조총련계 일본기업에 의한 투자이다.

81) 북한의 대외무역은 1984년에서 1989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25억2천1백만달러에서 45억1천6백만달러로 증가, 79%의 성장세를 보여 주었다.

기간동안 북한의 대서방국가 교역은 별다른 증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외채문제로 인한 수입감소·수출증대라는 보수적인 무역 전략이 서방국가와의 무역을 제약한 것이며, 동시에 1985~1989년 동안 구소련과의 정치적 밀착으로 인한 무역량 증대로 대서방 선진국과의 교역확대 필요성이 감소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대서방 무역은 1984년 9억3천5백만달러에서 1989년에는 12억3천만달러로 32%증가한데 반하여, 구소련과의 무역은 1984년 8억4천만달러에서 1989년에는 23억7천만달러로 183%나 증가하였다.

## 나. 1990년 이후

### (1) (구)사회주의권 국가와의 대외무역

1988년 9월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 연설이후 소련 전역에 걸쳐 그라스노스트(glasnost)와 페레스뜨로이카(perestroika)가 추진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은 완화되었으며, 점차 소련의 대외정책의 목표와 북한의 그것과 괴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모스크바는 자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과의 유대강화와 경제적 원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을 더 이상 이념적 敵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소련의 태도를 받아들이지 수가 없었다.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소련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소련의 대북 경제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악화되었으며, 1991년 8월의 쿠데타때 평양이 긍정적인 논평을 발표함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쿠데타가 진압된 후 모스크바는 북한에 대해 그때까지도 지속되었던 제한적인 경제원조마저도 중단해 버렸다. 소련과의 관계 악화가 초래한 최악

의 결과는 소련이 지금까지 북한에 원유를 제공할 때 적용했던 우호 가격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1991년부터의 무역거래는 국제가격에 따라 현금 결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소련과의 무역거래에서 과중한 외화부담을 안게 되어 교역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정책 변화는 소련의 붕괴 후에도 러시아 연방과 북한과의 무역에 반영되어 지속적인 교역량 감소를 가져왔다. 특히 1990년과 1991년에는 전년도 실적의 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의 급감 현상은 구소련의 루블화가 1990년 11월 1일부로 약 300% 평가 절하됨에 따른 것이며,<sup>82)</sup> 1991년의 감소는 1990년 11월에 양국간에 체결된 「무역대금 경화결제 협정」에 따라 1991년부터 순수 상업베이스에서 무역을 거래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과거 최대 교역국이었던 구소련과의 교역급감은 1991년 북한 대외무역의 부진을 가져왔으며, 이후 구사회주의권 시장의 상실을 대체할 시장을 발굴하지 못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인 감소를 감수해야 했다. 1990년 9억3천6백만 달러에 달했던 북한의 대소련과의 교역은 1991년에는 3억6천6백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60%이상이 감소하였으며 199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무역액이 감소해 왔다. 그 결과 1997년 북한과 구소련의 교역액은 1991년의 1/3에도 미치지 못한 9천9백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구소련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1년의 14.4%에서 1997년에는 4.6%로 하락하였다.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의 체제개혁 작업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82) 루블화의 평가절하로 1990년 이전과 1990년 이후의 北蘇간 미달러표시 교역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를 그 이전과 구분하여 무역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의 고립이 심화되어 가자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더욱 매달리게 된다. 비록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 한국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국교를 수립(1992.8.24)함에 따라서 북한 지도부의 대중국 신뢰도가 훼손되기는 했으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를 갖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90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교역량을 살펴보면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북한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다. 북한과 중국과의 교역은 1990년 이후 1994년과 1995년을 제외하고<sup>83)</sup> 지속적으로 증가, 1990년 4억8천3백만달러에서 1997년에는 6억5천6천만달러로 36%의 증가를 보였으며,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의 16%에서 1997년에는 30%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역할은 수입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1990년 3억5천8백만달러에서 1997년에는 5억3천5백만달러로 50%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북한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9%에서 1997년에는 40%로 두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북한의 구사회주의권과의 대외무역량은 1990년대에 들어서만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구소련 및 중국과의 정치적 친밀도는, 비록 양국간의 교역관련 협약을 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체결된 계약이 장기간(보통 5년)에 걸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차가

83) 이 기간동안 북중교역이 감소한 이유는 북한의 생산력 저하와 외화부족문제의 악화에 따른 정상거래의 위축 및 북한의 대중국 채무증가라는 북한측 요인과 중국의 대내외정책의 변화(경제안정을 위한 긴축정책 및 수입관련정책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의 무역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2) 자본주의권 국가와의 대외무역

합영법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권 시장의 상실은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대외개방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방하여 경제회복의 계기로 삼으려 하였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도입은 합영법의 실패로 새로운 외자유치방식이 요구되었으며, 중국의 경제특구 성공사례가 유혹적인 상태에서 경제개방정책의 영향을 일부지역에만 한정시켜 정치체제에 대한 위협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sup>84)</sup>

북한의 나진선봉지대 개발전략은 첫째, 기존의 수송인프라를 정비·개선하여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키우고, 둘째,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수출공업단지로 육성하며, 셋째, 관광사업을 통한 외화획득에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를 2단계로 나누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1993~2000년, 당면단계)는 기존의 철도·도로·항만 등 하부구조망을 정비하여 국제화물중계수송기지로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2단계(2001~2010, 전망단계)는 자유무역항의 능력을 계속 확대하여 중계무역·수출가공·관광 및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건설하

---

84) 실제로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 직후부터 그 일대 주민의 성분을 조사하여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당면단계의 목표에 따라 철도·도로·항만 등 수송망 건설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85)</sup>

또한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1997년 6월에는 자유무역지대내의 기업채산과 가격결정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기업관리운영규정'과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격규정' 및 개인기업의 설립을 인가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가내편의봉사업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주식회사법,' '보세가공구법,' 그리고 '금융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가 발표된 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 및 투자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실질적인 투자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북한경제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며 남북한의 긴장상태의 지속으로 외국투자자들이 투자위험도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나진선봉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시장경제제도 도입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sup>86)</sup>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비롯하여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외무역에 있어서도 별다른 증가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표 3-3>에

85) 지난 5월초 나진선봉지대를 방문한 미주 한인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당국자들은 올해가 이 지역의 개발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올 중순경에 통신센터를 착공하여 올해안으로 이 지역에서 이동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한편 철도개발, 도로건설 등 외국기업 유치에 필요한 하부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86)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은 자영업 및 사기업 설립 허용, 국영기업에 대한 독립채산제 도입, 자유교역시장 개설, 환율의 현실화 등을 들 수 있으며, 행정절차의 정비는, 천만달러 이하의 경우 투자관련 권한의 지방당국 이양과 함께 투자관련 수속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 나타나는 것처럼, 20%대를 유지하던 북한의 대외의존도가 1990년대에 와서 10%대 이하로 급격하게 하락,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정책이 후퇴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표 3-3> 북한의 대외의존도

(단위: 백만달러, %)

년도	무역총액	GNP	대외의존도	년도	무역총액	GNP	대외의존도
1962	359.4	2,020.0	0.18	1981	2,562.7	13,560.0	0.19
1965	469.6	2,340.0	0.20	1984	2,521.3	14,720.0	0.17
1968	586.5	2,980.0	0.20	1987	4,027.2	19,400.0	0.21
1971	953.1	4,090.0	0.23	1990	3,038.7	23,100.0	0.13
1974	2,078.4	7,290.0	0.29	1993	2,589.9	20,500.0	0.08
1975	2,018.8	9,350.0	0.22	1996	2,036.5	21,400.0	0.06
1978	2,233.3	13,320.0	0.17	1997	2,172.2	16,814.0	0.08

출처: 유엔통계국의 무역자료; 1962~1981년 사이의 중국자료는 「中國經濟年鑑」 참고; 1962~1990년 사이의 구소련자료는 *Vneshniaia torgovlia SSSR* 참고; 그외 부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참고.

1990년대 북한의 대서방국가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의 27.3%에서 1997년에는 64.1%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교역량은 1989년 12억6천만달러에서 1997년에는 13억9천만달러로 13%증가한데 불과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의 대서방국가가 북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한 것이 구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 및 구소련과의 무역량 격감에 따른 반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뿐, 대외개방의 확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임을 의미한다. 1990년대 북한의 대서방국가와의 무역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수입에 비해서 수출의 증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서방국가 수입은 1989년 7억1천6백만달러에서 1997년

7억2천만달러로 3백만달러, 0.4%증가한데 그친 반면에, 수출은 1989년 5억1천5백만달러에서 1997년 6억7천만달러로 1억5천9백만달러, 30.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수지에 있어서 1987년 이후 1992년과 199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대일본 무역흑자를 실현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주된 외화자금원이었던 개발도상국가들의 역할이 1980년 후반 이후 일본으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소련과의 교역이 급감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1997년까지의 기간동안 북한의 대일본 무역수지를 합하면 2억8천7백만달러의 순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외화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대일본 무역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이 서방국가와의 무역에 미친 영향은 일본과의 교역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 북한이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개혁작업에는 무관심했으며, 2) 심각한 외채문제로 인하여 수입축소·수출확대라는 소극적인 무역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고, 3) 원자재 및 원료의 주공급원이었던 구소련 시장의 상실로 생겨난 공백을 메우지 못하여 심각한 원자재 및 원료 부족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생산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2. 수출입 상품의 구조 변화

북한무역에 나타나는 상품별 특성을 분석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 통계와 연관되어 있다. 1981년까지는 중국과의 무역량 통계가 수출입 총액만을 알 수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무역통계는 부분적으로 누락되거나 무역총액 또는 수출입 총액만이

발표된 경우가 많다. 구소련과의 무역 통계치도 1991년 이후에는 제한적으로만 입수가 가능하며, 이전의 통계는 구소련의 독자적인 분류 방법에 의해서 발표되어 있어서 정확한 비교·분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중국과의 무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있다.<sup>87)</sup> 본 절에서는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북한무역의 수출입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가. 1990년 이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북한의 무역을 살펴보면, 수출에서는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SITC 6)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식품(SITC 0)과 원자재(SITC 2)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입에서는 기계 및 수송장비(SITC 7)의 비중이 우세한 가운데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SITC 6), 광물성 연료(SITC 3), 원자재(SITC 2) 그리고 식품(SITC 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수출에서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까지 거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1960년대에 산업화의 기반구축에 어느 정도는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의 수출에서 중심이 된 품목은 1960년대에는 철강과 비철금속 제품이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시멘트를 비롯한 건축자재, 선철, 철과 강철판 및 아연 등이 주류를 이루었

87) 편의상 1981년 이후의 실적을 평균한 수치를 이용하여 과거의 상품별 구성을 추정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지나친 왜곡 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1981년 이후부터 분석하는 것인데, 이 경우의 문제점은 북한이 서방 선진국과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1970년대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안으로 1981년까지는 중국을 제외한 무역량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 수입에서는 원유와 동력기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SITC 6)과 기계 및 수송장비(SITC 7)의 수입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선진국의 비중이 1960대와 1970년대의 기간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sup>88)</sup>

<표 3-4>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주요 수입품목의 변화추이  
(단위: 천달러)

SITC코드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041	5,109	7,153	10,386	11,252	77,840	6,592	34,189
046	922	0	9,770	47,374	62,778	0	13
651	1,564	1,941	5,353	6,221	15,859	772	1,128
653	1,682	1,161	12,919	7,278	20,158	1,278	928
674	298	680	4,824	18,213	21,466	7,917	8,137
678	69	34	2,776	12,962	20,381	6,222	2,129
691	9	13	70	1,624	5,577	16,217	4,846
711	434	3,743	785	1,027	9,929	11,306	2,846
715	5,979	107	1,292	2,800	10,696	32,575	46,274
717	6,210	7,376	20,931	4,722	31,905	9,534	704
718	401	652	850	5,163	46,692	72,724	30,110
719	3,781	5,937	18,297	25,593	105,644	89,855	21,778
722	2,117	3,448	1,599	2,211	16,491	24,493	8,083
729	2,597	2,966	2,353	4,504	15,192	10,770	10,750
732	327	384	6,086	6,813	28,031	25,660	8,072

출처: 유엔통계국 무역자료

1970년대 초반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북한이 수입한 주요 품목은, 밀(SITC 041, 046), 석유사(SITC 651, 653), 철강제품(SITC 674, 678, 691), 각종 기계류(SITC 711, 715, 717, 718, 719, 722, 729) 그리고 자동차(SITC 732)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각종 기계류와 자동차(SITC 71, 72, 73)의 비중은 1970년대 초반의 기간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였

88)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을 수입한 비중은 1962년 20%에서 1970년에는 32%로, 1980년에는 68%로 증가하였다.

다. 그러나 1975년을 고비로 외채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북한은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그 결과 각종 기계류 및 자동차의 수입에서 서방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게 되었다.

외채문제로 인하여 서방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 북한은 소련에 대한 의존도를 다시 확대하게 된다. 1960~70년대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기계 및 장비, 고체연료(석탄과 코크스탄)와 액체연료(원유와 석유제품), 면사 등을 주로 수입하고 제철산업 생산품(선철, 철합금, 아연 및 동), 건설재료, 쌀, 의류 등을 주로 수출했다.

<표 3-5> 북한의 대소련 무역 상품 구성, 1962~1980

(단위: 천달러)

년도	구분	SITC0	SITC1	SITC2	SITC3	SITC4	SITC5	SITC6	SITC7	SITC8	소계
1962	수출	5003	6348	4529	0	0	7591	59326	2044	89	84930
	수입	4056	0	10139	17540	0	3037	14252	21661	2039	72723
1965	수출	11839	8288	2827	0	0	4797	56026	1473	2346	87594
	수입	6329	0	9860	15721	1	4167	13309	28320	4142	81849
1968	수출	14611	4502	4326	0	0	9236	72634	6663	7937	119909
	수입	16052	0	16741	42933	3222	5632	16149	45979	3574	150283
1970	수출	18423	6149	4263	0	0	2789	72589	9229	18438	131889
	수입	22534	0	11746	45071	2916	5798	14356	98463	5832	206667
1972	수출	17579	6292	4911	0	0	8387	84516	12539	17369	151628
	수입	604	0	10490	28750	2821	6205	15951	111532	7072	183474
1974	수출	28464	6268	6926	0	0	11539	106256	18878	13053	191413
	수입	16606	0	11408	41884	2865	3789	16070	105675	8269	206605
1976	수출	24818	4228	7239	0	0	8511	92272	4239	12464	153714
	수입	28676	0	8788	72977	789	2781	16817	62198	5869	198939
1978	수출	50059	10779	12748	0	0	12800	165483	10353	18156	280455
	수입	35906	0	13903	112829	430	3712	12882	40171	6979	226818
1980	수출	65319	16265	18427	0	0	16347	215128	28024	35869	395338
	수입	55546	0	18119	152445	438	2656	14099	125317	10753	379398

출처: Vneshniaia torgovlia SSSR 각년도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대소련 수입구조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기계류와 공업장비의 수입이 1960년대에는 증가해 오다가 1970년대에 와서는 점차 감소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국내 기계공업의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서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 수입수요가 감소한 데다가 수입선을 서방 선진국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82년 이후 북한의 수출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수출에서는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SITC 6)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가운데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1982년 49%에서 1989년에는 32%까지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식료품 및 식용동물(SITC 0)과 비식용 원재료(SITC 2)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계 및 운송설비(SITC 7)와 기타 제조품(SITC 8)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기타 제조품(SITC 8)의 비중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1982년에 9%에 불과하였던 것이 1989년에는 34%에 달하여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SITC 6)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수출하는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SITC 6)에는 각종 철강제품(SITC 672, 673, 674), 비철 광산물(SITC 663), 시멘트를 비롯한 건축자재(SITC 661), 납과 아연(SITC 685, 686)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출 대상국가로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과 소련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82년 북한의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 수출에 있어서 중국과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72%였으며 일본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비중은 2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후반까지도 이어져 1987년에 중국과 소련의 비중은 71%, 자본주의 국가들은 26%를 차지하



였다.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기가 1988년이다. 그 결과 1989년에는 중국과 소련의 비중이 57%에 불과한 반면에 일본과 개발도상국가들이 차지한 비중은 41%에 육박하게 되었다.

<표 3-6> 북한의 수출상품 구성, 1982~1989

(단위: 천달러)

년도	국가	SITC0	SITC1	SITC2	SITC3	SITC5	SITC6	SITC7	SITC8	SITC9	총계
1982	중국	19128	0	43271	61300	8523	162005	0	0	0	305247
	소련	66908	26366	12359	0	19862	228773	35121	72092	0	496575
	일본	45710	198	40542	2739	1435	45612	8	464	809	137517
	소계	141650	27757	132334	64785	38481	538439	51098	99317	915	1207995
1984	중국	33306	157	29489	54085	12430	147261	0	86	0	276908
	소련	6547	26085	15242	0	15551	201629	60592	63645	0	430118
	일본	44970	141	26386	3710	2391	52060	10	635	912	131215
	소계	108196	27537	98145	61350	44079	460355	87807	77957	122233	1194499
1986	중국	38166	2402	30107	58428	8442	139938	1604	115	69	279272
	소련	6499	5902	17632	0	10943	302224	117265	143408	0	658918
	일본	50754	267	18114	16314	410	59648	7	2315	9653	157481
	소계	102070	10303	99670	76170	31121	591233	151125	167196	51946	1397764
1988	중국	38407	171	36664	57658	11740	88568	330	136	0	233674
	소련	54208	0	18021	0	16204	264451	104779	355124	0	881536
	일본	81225	357	25294	20235	945	98020	28	6191	62840	295135
	소계	180311	644	129602	97830	43163	568792	203475	390333	92756	1855186
1989	중국	28149	105	35029	51378	7053	61029	710	204	899	184557
	소련	3886	0	10861	0	11915	213594	77673	465692	0	887046
	일본	90497	213	26855	22504	833	113001	39	11801	5784	271526
	소계	137151	1103	110943	76537	34669	483083	140224	514485	26527	1708896

출처: 유엔통계국의 무역자료, 1982~1989년 사이의 구소련자료는 *Vneshniaia torgovlia SSSR*, 그 외는 KOTRA의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참고.

참고: 국가별 소계는 기타사회주의 국가, 일본을 제외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 및 개도국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제조품(SITC 8)중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일반의류(SITC 841)와 신발(SITC 851)로 특히 의류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기타 제조품 수출은 198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89년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1982년 1억달러에서 1980년대 전반에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후반에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1989년에는 5억달러를 상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급등 현상은 북한이 대소련 의류수출을 확대하였기 때문인데 1987년에 1억6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하였던 북한이 1988년에는 3억6천만달러어치를 소련에 수출하였으며, 1989년에는 4억7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이다.

이 외에 북한의 수출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온 상품으로, 식료품 및 식용동물(SITC 0)을 비롯하여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SITC 2), 기계 및 수송장비(SITC 7) 등이 있다. 식료품 및 식용동물(SITC 0)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과 소련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은 1980년대 초반부터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과 소련에 수출하는 품목은 쌀(SITC 042)<sup>89)</sup>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 대한 수출에서는 생선((SITC 031)과 야채(SITC 054)가 주된 품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SITC 2)의 수출에 있어서 주요 상대국은 중국과 일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품목으로는 마그네사이트(SITC 27624)와 원사(SITC 2613)가 대표적이다. 북한의 기계 및 수송장비(SITC 7) 수출은 1980년대 전반까지는 소련에 대한 수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

89) 소련과의 거래에 있어서 북한은 쌀을 수출한 대신 상대적으로 저가인 밀을 소련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해 온 것으로 보인다.

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기계 및 수송장비 수출에서 소련이 차지한 비중은 1985년 79%에서 1989년 55%로 하락하였으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985년 12%에서 1989년 23%로 상승하였다. 기계 및 수송장비의 대소련 수출에 있어서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용 축전기이고 대개발도상국 수출에서는 저가 기계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82년 이후 북한의 수입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광물성 연료(SITC 3), 기계 및 수송장비(SITC 7), 그리고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SITC 6)의 비중이 절대적인 가운데<sup>90)</sup> 1980년대 초반과 중반에는 광물성 연료의 비중이 가장 크고(31%~36%) 기계 및 수송장비(25%~29%),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14%~17%)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변하게 된다. 1988년 기계 및 수송장비(28%), 광물성 연료(24%) 그리고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16%) 순으로 비중의 크기가 바뀌어 1980년대 후반에는 기계 및 수송장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광물성 연료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9년까지는 광물성 연료가 북한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7년 31%로 30%대를 유지하다가 1989년 19%로 하락한 것이다.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입은 대부분을 사회주의 국가, 특히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수입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략물자인 광물성 연료(코크스와 원유 및 석유제품)의 도입은 이들 국가와 북한 지도부간의 정치적 친밀도에 따라 도입양이 민감하게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밀착되었던 1980년대 초반에는

90) 세 가지 분야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초반에는 점차 증가하여 1982년 72%에서 1986년 76%까지 증가하였으나, 1986년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소련과 밀착되었던 1980년대 중반과 후반에는 소련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의 원유와 코크스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55%에서 1986년에는 32%까지 하락하였으나 1988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소련의 비중은 1982년 38%에서 1987년 67%까지 증가했으나 1988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3-7> 북한의 수입상품 구성, 1982~1989

(단위: 천달러)

년도	국가	SITC0	SITC1	SITC2	SITC3	SITC4	SITC5	SITC6	SITC7	SITC8	SITC9	총계
1982	중국	0	0	0	245918	0	0	0	20682	0	0	282631
	소련	52855	0	20979	169838	0	4779	12537	102188	10393	0	436301
	일본	1177	245	11259	15464	1718	41256	108284	132191	21960	10923	344478
	소계	111876	3759	111498	445618	12651	95378	185865	334118	45124	13489	1515787
1984	중국	8846	0	4892	193274	2488	5194	1921	12868	504	0	229986
	소련	0	0	19879	152333	0	11956	31651	117974	9000	0	408471
	일본	1059	444	2631	7839	407	24927	72855	136750	25179	8098	280189
	소계	28672	6410	112415	361840	16794	96406	158721	333132	47123	11094	1326767
1986	중국	18731	6	27840	171923	2871	6967	16550	5164	1410	26	251488
	소련	0	0	29281	343506	0	10234	50135	198404	9411	0	1107018
	일본	1267	792	1478	2288	663	21209	59329	92266	16078	6997	202368
	소계	70793	2014	117650	535958	12132	90708	208465	380457	41610	12064	1996063
1988	중국	34349	339	59865	174036	827	15451	28089	27278	5091	23	345348
	소련	40902	0	34158	282905	0	11523	102560	250750	8077	2574	1735621
	일본	4409	809	521	2927	578	23205	60631	108591	25166	35934	262771
	소계	162379	5105	195984	473765	11917	131570	308845	535484	70212	47787	3028319
1989	중국	75858	1231	47791	143466	273	30663	34212	36388	7583	3	377367
	소련	0	0	28987	206403	0	9073	106964	372600	46379	4722	1485782
	일본	3603	1477	694	788	616	17557	51399	109050	23145	8372	216701
	소계	138654	8180	127154	356272	11842	119188	326766	679037	83154	16782	2806820

출처: <표 3-6>과 동일.

기계 및 수송장비에서는 금속세공기계, 섬유 및 가죽 가공기계, 비전동 기계류, 통신장비 등을 포함한 각종 기계류의 수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1980년대에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1982년에 25%에서 1985년 29%까지 증가하다 1986년에는 26%로 조금 하락했으나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에는 36%에 달하였다.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1988년 이후 기계 및 수송장비는 북한의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북한이 기계 및 수송장비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일본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과 소련<sup>91)</sup>이었으며 특히 1980년대 전반에는 50%이상을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한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의 경우에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2년에 14%를 기록하였으며 1989년에는 18%에 달하여 미세하나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이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을 수입하는데 지출한 금액도 1982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82년 1억8천6백만달러에서 1986년 2억 8백만달러, 1989년 3억2천7백만달러로 늘어났다. 1980년대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의 수입에 있어서 북한은 1980년대 전반에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이었으나 점차 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 수입 비중은 1982년 89%에서 1985년 70%, 1989년 54%로 하락하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식료품 및 식용동물(SITC 0),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SITC 2), 화학제품(SITC 5)이 합해서 최소 19%에서 최대 25%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통밀(SITC 041)과 통옥수수

91) 그러나 1993년부터는 구소련 대신에 중국이 주요 수입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SITC 044), 면(SITC 263)과 비철광석(SITC 283) 및 철광석(SITC 281), 유기화학제품(SITC 512)과 플라스틱제품(SITC 581) 및 일반 화학제품(SITC 599) 등이 있다.

#### 나. 1990년 이후

1990년 이후 북한의 수출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1980년대 후반까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SITC 6)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기타 제조품(SITC 8)과 선두자리를 다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SITC 6)의 비중은 1990년대 초반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1989년 32%에서 1990년 28%, 1992년에는 23%에 이르게 되었는데 반하여, 기타 제조품(SITC 8)의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내어 1989년 34%에서 1990년 28%, 1992년에는 30%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1993년에는 각각 38%를 기록함으로써 선두자리를 되찾은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은 1995년과 1996년에는 15%대에 머물러 같은 기간(1995~1996) 동안 32%와 39%를 기록한 기타 제조품에 비해서 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는 식료품 및 식용동물(SITC 0)을 비롯하여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SITC 2) 및 기계 및 수송장비(SITC 7) 등이 북한의 수출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이러한 현상들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북한이 수출하는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SITC 6)의 경우, 소련의 비중이 급감한 1989년 이후에는 일본을 중심으로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1993년과 1994년에는 중

<표 3-8> 북한의 수출상품 구성, 1990~1996

(단위: 천달러)

년도	국가	SITC0	SITC1	SITC2	SITC3	SITC4	SITC5	SITC6	SITC7	SITC 8	SITC 9	총계
1990	중국	20367	0	17898	33337	0	3797	48054	878	232	12	124576
	소련	863	0	4954	0	0	3394	63799	63753	208007	0	382750
	일본	87017	333	25922	23007	0	705	110320	83	24349	1249	272984
	소계	110973	530	86503	66726	2	21155	289157	145475	287924	37680	780310
1992	중국	16112	89	26926	18530	0	8744	80211	3542	801	509	155464
	구소련	1256	0	2	806	0	1198	7770	3648	25187	0	58680
	일본	83471	230	14315	15830	0	429	54878	421	62170	336	232080
	소계	108697	895	96743	35183	1	45220	200162	106851	252045	7744	872859
1994	중국	17349	139	23306	1642	19	4199	150923	264	1357	16	199219
	구소련	41	0	6868	812	0	45	1094	3467	3733	1865	41368
	일본	135935	110	9632	17052	0	761	32357	7332	84529	246	287954
	소계	156911	273	78593	23290	49	37314	250216	72357	220030	14324	876846
1996	중국	8069	35	35263	1827	0	3530	13091	5201	1390	235	68641
	구소련	3517	0	0	0	0	234	1697	12484	9030	0	31080
	일본	86990	419	13261	17326	0	444	21679	7766	114066	285	262237
	소계	100295	1348	75024	22577	12	26604	104152	96031	269371	2573	704532

출처: 유엔통계국의 무역자료, 그 외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참조.

참고: 국가별 소계는 기타사회주의 국가, 일본을 제외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 및 개도국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sup>92)</sup>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북한의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 수출에 있어서 일본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비중은 1990년대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에는 중소의 비중이 39%였으며 일본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비중은 42%였으나, 1996년에는 중소의 비중은 15%에 불과한 반면에 자본주의 국가들의 비중은 83%로 급증한 것이다. 또한 1990년 이후 북한의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 수출은 중국에 대한 수

92)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철강과 시멘트의 수출이 급증하여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곡물 및 원유의 수입대금을 철강제품으로 변제하였거나 러시아로부터 철강을 수입하여 중국으로 되거리 무역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993. 1994. 1995년판 참조.

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1993년과 1994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 특히 비철금속과 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철강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기타 제조품(SITC 8)의 경우, 1990년대에 비교적 안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현상은 1980년대에 급등하였던 북한의 대소련 의류수출은 1990년에 전년도에 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루블화 표시로 살펴보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sup>93)</sup> 따라서 물량면에서는 1990년에 북한의 의류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의류제품의 대서방 선진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 최대의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섬유가공기계의 수입 증가현상 함께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섬유제품의 임가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sup>94)</sup>

이외에 식료품 및 식용동물(SITC 0)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과 소련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에 일본의 비중이 증가하여 1990년대에 와서는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SITC 2)의 수출에 있어서 주요 상대국이 1990년대에 와서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

93) 소련의 무역상품 분류번호 910, 913에 해당되는 부문은 유엔의 분류기호에서 SITC 841에 해당되는데 1989년 2억9천만 루블, 1990년 3억2천 8백만루블어치의 의류를 소련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음을 발표하였다. 소련, *Vneshniaia torgovlia SSSR*, 1989, 1990, 1991년판 참조.

94) 그러나 북한은 최근에 와서는 원유 및 전기·전자제품의 임가공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 임가공 품목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품목으로는 마그네사이트(SITC 27624)와 원사(SITC 2613) 등이 있다.

북한의 기계 및 수송장비(SITC 7) 수출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1990년대에 와서는 개발도상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북한의 기계 및 수송장비 수출에서 소련이 차지한 비중은 1989년 55%에서 1990년대에는 1992년 12%, 1996년 13%로 10%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 급락하였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989년 23%에서 1992년 77%로 상승한 후, 1994년 62%, 1996년 50%로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의 수입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SITC 6), 그리고 기계 및 수송장비(SITC 7), 광물성 연료(SITC 3)의 비중이 절대적인 가운데<sup>95)</sup>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과 기계 및 수송장비가 선두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기계 및 수송장비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990년대 중반에는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에 선두자리를 내주었으며 1996년에야 선두를 재탈환하였다. 1980년대에 북한이 기계 및 수송장비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일본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과 소련<sup>96)</sup>이었으나 1990년부터는 50%이상을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해오고 있으며, 1993년부터는 절대적인 부분을 서방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95) 세 가지 분야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65%에서 1992년 53%으로 하락하였다가 1994년 66%까지 증가하였으나, 1996년에는 58%를 기록하였다.

96) 그러나 1993년부터는 구소련을 대신하여 중국이 주요 수입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lt;표 3-9&gt; 북한의 수입상품 구성, 1990~1996

(단위: 천달러)

년도	국가	SITC0	SITC1	SITC2	SITC3	SITC4	SITC5	SITC6	SITC7	SITC8	SITC9	총계
1990	중국	50677	1078	45113	135882	164	39014	45906	34657	5665	4	358159
	소련	0	0	76964	64134	0	2372	30999	157146	224	2622	554125
	일본	3005	597	395	2443	206	19368	63822	73457	2101	9176	193490
	소계	108152	8800	177459	216032	11711	108639	314924	397983	64051	16663	1892741
1992	중국	113815	4860	32873	222340	2699	27816	66997	38017	31682	7	541108
	소련	0	0	93127	9775	0	18366	4313	53906	12147	0	249810
	일본	4085	855	1334	2493	218	19031	91082	88389	32328	5858	245673
	소계	158233	24525	157396	262836	15499	137718	306131	288325	132747	16516	1558318
1994	중국	53633	3445	34865	176536	2095	47417	59685	31014	14277	1515	424495
	소련	287	0	2384	1020	0	5020	23466	9763	1021	1278	116841
	일본	2319	466	722	2258	161	7805	86742	58725	22807	4941	189958
	소계	97159	13118	92095	190804	13183	122136	313109	299115	76802	9151	1299310
1996	중국	148805	9090	28939	158394	10654	40911	54445	32481	10110	3288	497017
	소련	574	0	5785	4065	0	7147	14400	10331	420	0	43932
	일본	2140	275	1750	28700	374	7778	96854	66264	23100	22328	249563
	소계	190826	24547	68603	215000	22915	118835	240128	292759	88016	36713	1299852

출처: &lt;표 3-8&gt;과 동일.

1990년 이후 서방 선진국이 차지했던 비중은 1989년 42%에서 1992년 61%, 1994년 80%, 1996년 72%로 1990년대에 들어와 그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는 비전동기계류(SITC 719)와 자동차(SITC 732)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금액에 있어서는 특별한 증가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 서방 선진국의 비중 확대가 북한의 무역규모 감소와 구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에 따른 반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1990년대의 광물성 연료의 수입 감소 현상을 감안해 볼 때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이상의 수입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당국의 선진 기계설비에 대한 집착과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방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의 경우에는 1989년까지 수입에서 차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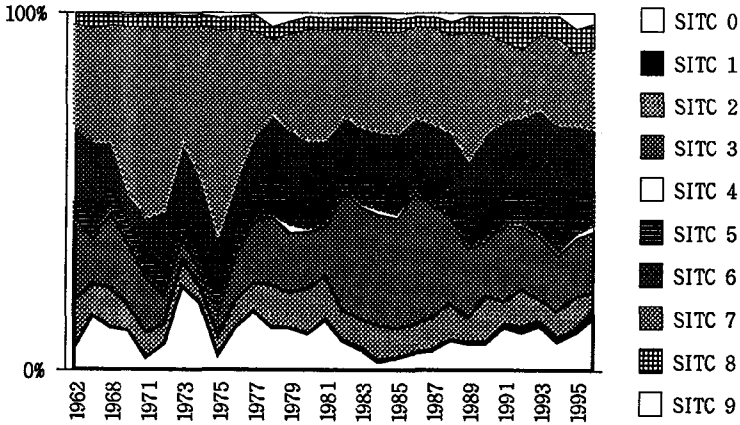
는 비중이 세 번째 위치를 점하였으나 1990년에 2위로 뛰어 오른 뒤 1992년에는 수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증가는 일차적으로 북한이 위탁가공용 섬유원자재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sup>97)</sup> 북한이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을 수입 하는데 지출한 금액은 1990년 3억1천5백만달러, 1993년 4억3천6백만 달러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1996년에는 2억4천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동시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22%에서 1993년과 1994년에는 26%로 증가하였으나 1996년에는 18%로 줄어들었다. 1990년대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의 수입에 있어서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80년 후반까지는 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1990년 이후 다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 수입 비중은 1982년 89%에서 1989년 54%로 하락하였다가, 1990년 73%로 급증한 뒤 1992년 72%, 94년 73%, 1996년 67%로 70%정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상품별 특성을 요약하면, <그림 3-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입에서는 1970년대에 기계 및 수송장비(SITC 7)에 대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광물성 연료, 특히 코크스나 원유,(SITC 3)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위탁가공용 섬유원자재의 수입증가로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SITC 6)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에서는 <그림 3-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SITC 6)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와 기타 제품(SITC 8) 비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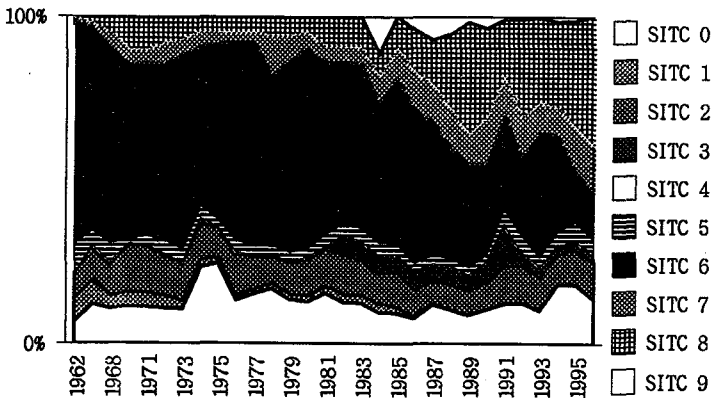
97) 1980년대 이후 북한이 수입하는 경공업 제품(SITC 6)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위탁가공용 섬유원자재(SITC 651, 652, 653)이다.

<그림 3-3> 북한의 수입 상품별 추이



지속적인 증가가 가장 특징적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의 비중이 지속적

<그림 3-4> 북한의 수출 상품별 추이



으로 감소하는 까닭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주요 수출원이었던 철강의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기타 제조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섬유제품의 입가공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새로운 수출원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별 특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개방정책의 효과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경제난과 구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하여 대외무역이 전체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국가별로 분석할 때는 개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발견하기 힘들지만 상품별로는 개방정책의 영향을 받아 수출과 수입구조가 변한 것이다.

### 3. 비교우위 분석

북한의 경제정책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지향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대외무역은 산업화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은 자립경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적인 단계로 간주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의 수입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 생산의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혀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었으며,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왔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갖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부에서는, 북한의 무역이 비교우위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필요성에만 입각하여 추진되어 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원칙이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고 믿기는 힘들다.<sup>98)</sup>

98) 계획경제국가에서도 비교우위원칙에 기초하여 대외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국의 대외무역은 국내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일반화된 가정에 입각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북한경제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통하여 북한의 산업이나 경제구조가 갖는 특징을 도출하고, 나아가 그것의 시간적 추이를 분석하여 북한경제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성이나 한계는 무엇인지를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顯示的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모형을 통해서 북한의 무역을 분석하였다. 현시적 비교우위(RCA)모형을 통한 분석은 한 국가의 무역패턴이 그 국가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sup>99)</sup> 이 현시

---

는 연구결과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Holzman, F. D., "Some Theories of the Hard Currency Shortages of Centrally Planned Economies," in *Soviet Economy in a Time of Change*, Vol. 2.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s, October 10, 1979); Amann, R., "Some Approaches to the Comparative Assessment of Soviet Technology: Its Level and Rate of Development," in Amann, R., and Davies, R. W. (eds.), *The Technological Level of Soviet Indust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Hill, M. R. and McKay, R., *Soviet Product Quality*, (New York: Martin's Press, 1988) 참고.

99) 수출의 관점에서 구한 현시적 비교우위(RCA) 지수는,

$$x_{ij} = (X_{ij} / \sum_{n=1}^N X_{nj}) / ( \sum_{i=1}^T X_{it} / \sum_{i=1}^N \sum_{i=1}^T X_{ni} )$$
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X_{nt}$ 는 국가 $t$  (북한)에 의해 수출되는 상품 $n$ 의 양,  $T$ 는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수, 그리고  $N$ 은 상품종류의 수를 나타낸다. 상품의 흐름  $\sum_{i=1}^T X_{it}$ 와

$\sum_{i=1}^N \sum_{i=1}^T X_{ni}$ 는 각각 분석대상 지역 (세계전체나 특정지역 또는 특정그룹 내에 속한 국가들)에서의 상품  $i$ 의 수출량과 모든 상품의 총수출량을 나타낸다. 같은 방식으로 수입의 측면에서 현시적 비교우위(RCA) 지수( $m_{ij}$ )를 구할 수 있다. 아마도 지수  $x_{ij}$ 와  $m_{ij}$ 는 상반되는 수치를 갖게 될 것이다. 사전적으로, 비교우위는  $x_{ii} > 1$ 와  $m_{ii} < 1$ 의 조건을 필요로 하며, 비교열위

적 비교우위라는 개념은 Balassa에<sup>100)</sup> 의해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어떤 상품의 현시적 비교우위는 그 상품이 한 국가의 수출이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전체의 수출이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그 지수를 얻을 수 있다. RCA지수는 개별 상품별로 구하거나, 또는 특정상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특성이나 중요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상품그룹별로 구할 수 있다. RCA지수는 그 사용의 용이함과 함께 RCA지수가 내포하는 정보의 명료함과 해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특성에 근거한 상품그룹의 분류가 해당 국가의 경제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한가의 여부와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의 양에 따라 분석결과에 대한 유용성의 크기가 달라진다.<sup>101)</sup>

### 가. 상품군의 분류

몇 가지 제약하에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국내 보존량이 적은 생산요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품들을 수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경향”이 있다는 의미는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현

---

는  $x_{ij} < 1$ 와  $m_{ij} > 1$ 의 조건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주  $x_{ij} > 1$ 와  $m_{ij} > 1$ , 또는  $x_{ij} < 1$ 와  $m_{ij} < 1$ 의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순효과’라고 지칭되는 지수( $w_{ij} = x_{ij} / m_{ij}$ )를 이용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im, Kang-Taeg, *North Korea's Foreign Trade: 1962~1992*, (New York: SUNY Albany, 1996, 1996) pp. 74~77 참조.

100) Balassa, B.,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NO. 33, 1965.

101) RCA지수의 북한무역에 대한 적용은 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그 유용성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경제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상품분류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표 3-10>에서 나타난 것처럼 핵서-오린상품은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그룹에 포함된 상품이 과연 북한의 경우에도 적합한가와 이와 관련된 통계치가 충분한 수준까지 수집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RCA모델의 적용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lt;표 3-10&gt; RCA분석을 위한 상품군 분류

상품군 분류	상품군 특 성	상품군에 포함된 상품	SITC코드 (Version 1)
1. 소비재 (Industrial goods for consumers)	주로 소비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상품	Medicin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perfumery, soaps, travel goods, clothing, footwear.	541, 551, 553-4, 831, 841-2, 851.
2. 생산재 (Industrial goods for production)	우선적으로 생산과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Inorganic chemicals, radioactive materials, dyes, veneers, plywood boards, building materials, mineral manufactures, iron and steel, metals, machinery, electrical machinery, road motor vehicles.	513-5, 532, 631, 661-3, 671-9, 681-9, 691-2, 711-2, 714-5, 717-8, 722-4, 726, 729, 732.
3. 리카르도재 (Ricardo goods)	자연자원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상품	Food, wood, fibers, minerals, paper, non-ferrous metals, oils, ores, raw fuels.	011-3, 022-5, 041-8, 051-5, 061, 071-2, 074-5, 121, 242-3, 251, 261-3, 271, 274, 281, 283, 285, 321, 331, 341, 411, 421-2, 431, 667, 681-7, 689.
4. 헤셔오린재 (Heckscher-Ohlin goods)	표준수준의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상품	Beverages, tobacco, cement, floor coverings, glass, pottery, ferrous metals, metal products, locomotives, ships, cars, domestic appliance, books, furniture, clothing, jewelry, stationery.	111-2, 122, 273, 533, 551, 553-4, 611-3, 621, 629, 651-7, 661-2, 664-6, 671-9, 691-8, 724-5, 731-3, 812, 821, 831, 841-2, 851, 892-5, 897.
5. 생산주기재 (Product-cycle goods)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상품	Chemicals, medicines, plastics, dyes, fertilizers, explosives, machinery, aircraft, instruments, clocks, munitions.	512-5, 521, 532, 541, 561, 571, 581, 711-2, 714-5, 717-8, 722-3, 726, 729, 734, 861-2, 864, 951.



상이라는 것으로, 이는 RCA지수를 구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성격을 공유한다고 판단되는 상품군을 통하여 지수를 구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북한경제의 특성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성이 대외무역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품군을 통해서 RCA지수를 구하고자 한다.<sup>102)</sup>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도 중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소비재부문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은 소비재부문에는 낮은 우선 순위를 두고 생산과 투자에 필요한 생산재부문에는 높은 우선 순위를 두어 왔다. 그러므로 소비재에 대한 수입수요는 낮은 반면에 생산재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으로 생산 가능한 소비재를 주로 수출할 것이므로 소비재부문에서는 비교우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자본재부문에서는 생산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비교열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경제가 발전하면서 생산 및 대외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나 생산요소는 변하게 될 것이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리카르도財' 즉 생산에서 자연자원의 비중이 절대적인 상품들이 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근대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헉서오린 재'(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공업제품)가 경제 전체에 확산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첨단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생산주기재'가 교역형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

102) Lim, Kang-Taeg, *North Korea's Foreign Trade: 1962~1992*, (New York: SUNY Albany, 1996), pp. 77~80 참조.

치게 될 것이다. 이 ‘생산주기재’는 몇몇 기업에 의해서만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뜻한다. 따라서 기술수준 관련 RCA지수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경제의 기술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 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분석결과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을 통해서 비교우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와 교역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구사회주의 국가까지 포함한 대외무역 자료이다. 두 가지를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1) 구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교역자료가 불완전하다는 점과, (2)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과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교역이 다른 기준에서 추진되었을 것이라는 점, (3) 특히 자본주의 국가와의 대외무역에서는 비교우위원칙이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sup>103)</sup>

### (1) 1986년 이전

1986년까지의 통계자료에서는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기가 힘들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분석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103) 또한 1986년까지의 통계자료는 중국이 제외되어 있어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986년 이후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3-11> RCA지수 분석결과: 1970~1986

상품군	무역 대상	종류	1970	1974	1978	1980	1982	1984	1986
1. 소비재	세계전체	x	2.18	1.41	1.23	1.53	3.47	3.24	3.40
		m	0.51	0.29	0.22	0.18	0.29	0.43	0.21
		w	4.26	4.80	5.70	8.60	12.02	7.49	16.3
	비사회주의 국가	x	0.13	0.31	0.90	0.54	1.90	0.97	0.46
		m	0.44	0.28	0.15	0.16	0.37	0.32	0.28
		w	0.30	1.12	5.93	3.38	5.13	3.07	1.62
2. 생산재	세계전체	x	1.73	1.83	1.46	2.10	1.69	1.49	1.49
		m	1.21	1.42	0.76	1.13	0.92	1.13	0.79
		w	1.43	1.29	1.92	1.86	1.83	1.32	1.87
	비사회주의 국가	x	1.42	1.63	1.20	2.18	1.54	1.17	1.16
		m	1.29	1.42	0.91	1.33	1.00	1.21	0.97
		w	1.10	1.15	1.31	1.64	1.53	0.97	1.20
3. 리카르도재	세계전체	x	1.18	1.45	0.88	0.94	0.83	0.71	0.67
		m	1.23	0.78	1.28	1.10	1.34	1.13	1.99
		w	0.96	1.86	0.69	0.86	0.62	0.63	0.34
	비사회주의 국가	x	2.07	1.97	1.01	1.22	1.18	1.41	1.62
		m	0.52	0.70	0.74	0.70	0.86	0.77	1.15
		w	4.00	2.80	1.37	1.74	1.37	1.83	1.41
4. 헉서오린재	세계전체	x	1.43	1.08	1.27	1.55	1.60	1.63	1.41
		m	0.40	0.96	0.71	0.85	0.72	0.90	0.62
		w	3.59	1.12	1.79	1.82	2.21	1.82	2.27
	비사회주의 국가	x	0.56	0.63	1.24	1.50	1.15	0.92	0.77
		m	0.55	1.08	0.91	1.06	0.97	1.00	0.90
		w	1.01	0.58	1.37	1.42	1.19	0.92	0.86
5. 생산주기재	세계전체	x	0.29	0.32	0.26	0.14	0.15	0.20	0.20
		m	1.86	1.57	0.85	0.97	1.11	1.24	0.96
		w	0.15	0.20	0.31	0.15	0.13	0.16	0.20
	비사회주의 국가	x	0.03	0.13	0.31	0.12	0.19	0.28	0.25
		m	2.18	1.39	1.01	1.04	1.06	1.26	1.07
		w	0.02	0.09	0.31	0.11	0.18	0.22	0.23

출처: 유엔의 대외무역통계, 소련의 *Vneshniaia torgovlia SSSR* 참조.

참고: 중국은 포함되지 않음.

## (가) 소비재와 생산재

먼저 세계전체와의 교역 통계에서 얻은 소비재 관련 지수를 살펴 보면, 북한은 소비재부문에서 앞에서 예상한대로 분명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소비재 수요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생산재 관련 상품군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비교열위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순효과의 관점에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사회주의권 국가와의 대외무역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세계 전체와의 교역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소비재의 비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RCA지수가 세계를 상대로한 수출에서의 RCA지수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소비재 수출이 사회주의권 시장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sup>104)</sup> 자본재의 경우에는 세계 전체를 상대로 교역한 결과와 비교할 때, 비교열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비교우위가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수출의 RCA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수입의 RCA지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본재의 교역에 있어서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에서는 수출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입에 집중하였음을 의미한다.

## (나) 기술수준

세계전체와의 교역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북한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자연자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품(리카르도재)의 생산

---

104) 그 중에서도 구소련의 시베리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에 비교우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반전되어 1970년대 중반에 와서 북한은 리카르도재에 대해 비교열위를 갖게 된다. ‘핵서오린재’의 경우에는 분석 기간 내내 북한이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높은 저축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중공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표준화된 기술이 요구되는 상품이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북한이 상품의 다양성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으며,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종합하면, 북한이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단계에서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는 단계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생산주기재’와 관련된 RCA지수에서는 분석기간 내내 비교열위를 보여 주고 있다. ‘생산주기재’에 속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전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폐쇄적인 대외경제정책이 첨단기술의 유입을 가로막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의미하는 것은, 북한이 ‘리카르도재’에서 ‘핵서오린재’에 비교우위를 갖는 단계로의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보다 높은 단계인 ‘생산주기재’에 비교우위를 갖는 수준까지 기술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개방정책등을 통한 신기술 도입노력이 더 요구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자본주의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세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자연자원의 비중이 큰 ‘리카르도재’에 대한 RCA지수를 살펴보면, 비교열위가 나타난 세계전체 교역에서와는 상반되게 자본주의 국가만을 상대로 무역을 하

는 경우에는 비교우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핵서오린재'의 경우에는 비교우위가 분명하게 나타난 세계전체 교역에서와는 달리 비교우위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생산주기재'의 경우에는 비교열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북한이 '리카르도재'에 비교우위를 갖는 수준에서 '핵서오린재'에 비교우위를 갖는 단계로의 전환 과정에 있으며, '생산주기재'에 비교우위를 갖는 수준까지 진전되기에는 현재로서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세계 전체를 상대로한 무역 통계를 통해서 얻은 결과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2) 1986년 이후부터 1991년 이전까지

1984년 9월 북한은 합영법을 채택한 뒤 외국과의 합영·합작사업을 통하여 외국의 자본과 신기술을 도입, 외채상환의 제약에서 벗어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여 제한적이나마 대외개방을 표방하는 정책을 시도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동안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나타나는 비교우위를 분석하여 합영법의 도입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가) 소비재와 생산재

세계전체와의 교역 통계에서 나타난 RCA지수를 살펴보면, 북한은

소비재와 생산재군에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재군에서는 198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비교우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재군에서는 수입관련 지수의 감소의 영향으로 이전보다는 비교우위가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3-12> RCA지수 분석결과: 1987~1990

상품군	종류	세계전체와의 대외무역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대외무역			
		1987	1988	1989	1990	1987	1988	1989	1990
1. 소비재	x	2.29	3.96	6.11	4.76	0.58	0.66	1.38	2.20
	m	0.25	0.26	0.36	0.40	0.31	0.32	0.49	0.46
	w	9.12	15.1	17.0	11.8	1.89	2.04	2.81	4.73
2. 생산재	x	1.37	1.21	1.11	1.04	0.97	1.26	1.31	1.12
	m	0.69	0.70	1.01	0.94	1.08	0.83	1.06	1.08
	w	1.98	1.74	1.09	1.11	0.89	1.52	1.23	1.03
3. 리카르도재	x	1.04	1.07	1.00	1.18	1.48	1.48	2.06	1.61
	m	2.20	2.00	1.48	1.63	1.06	1.18	0.75	0.89
	w	0.48	0.53	0.68	0.73	1.39	1.25	2.72	1.82
4. 헥서오란재	x	1.19	1.34	1.61	1.49	0.61	0.82	0.86	1.02
	m	0.67	0.77	0.83	0.93	1.05	0.80	1.10	1.10
	w	1.78	1.74	1.94	1.61	0.58	1.02	0.78	0.93
5. 생산주기재	x	0.42	0.36	0.27	0.25	0.29	0.28	0.16	0.26
	m	0.65	0.64	0.98	0.72	1.00	0.91	0.88	0.86
	w	0.64	0.56	0.28	0.35	0.29	0.31	0.19	0.30

출처: 유엔의 대외무역통계, 소련의 *Vneshniaia torgovlia SSSR* 참조.

소비재군의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북한은 SITC 551(essential oil and perfume)과 841(clothing, non-fur)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SITC 554(soaps, cleaning products)에 대해서는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사실은 이기간 동

안 1980년대 중반까지도 비교우위를 나타냈던 SITC 851(footwear)에 대한 비교우위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생산재군의 주요 품목에서는, 북한이 SITC 661(cement, building product), 663(other nonmetal mineral manufactures), 672(iron and steel, primary forms), 673(iron and steel shapes), 681(silver and platinum), 685(lead), 686(zinc) 그리고 715(metalworking machinery) 등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SITC 717(textile, leather machinery)와 718(machinery for special industries) 등에서는 비교열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ITC 661, 663, 672, 673, 685, 686의 비교우위는 월등하게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사회주의권 국가와의 대외무역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세계 전체와의 교역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소비재의 경우 1987년과 1988년에는 비교우위가 거의 부각되지 않다가 1989년과 1990년에 비교우위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생산재의 경우에는 비교우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상대적인(순효과에서) 비교우위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북한의 소비재 수출이 사회주의권 시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점차 자본주의권 국가에 대한 소비재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재의 경우에는 1986년 이전과 비슷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소비재군의 주요 품목에서는, 북한이 SITC 551(essential oil and perfume), 841(clothing, non-fur)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재군에서는, 북한이 SITC 661(cement, building product), 672(iron and steel, primary forms), 673(iron and steel shapes), 681(silver and platinum), 686(zinc) 등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SITC 717(textile, leather machinery), 718(machinery for special industries), 719(nonelectric machines), 726(electric distributing



machinery) 등에서는 비교열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세계전체와의 교역과 비교할 때, 몇몇 기계류(SITC 719와 726)에서는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에서만 비교열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기술수준

세계전체와의 교역에서 도출된 기술수준과 관련된 지수들을 살펴보면, 북한은 '리카르도재'에 비교열위를 갖으며 '헉셔오린재'에 대해서는 비교우위를 갖는 1980년대 초반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리카르도재'의 수출 비중이 1986년 이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주기재'의 경우에는 198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교열위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입비중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북한이 합영법을 통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첨단 기술을 내포하고 있는 '생산주기재'의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자연자원과 생산이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는 '리카르도재'의 수출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수준의 개선에 역행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소련에 대한 대외무역 의존도가 증가한데서 부분적이거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리카르도재'에 포함된 품목중에서 북한은, SITC 054(vegetable, fresh & simply preserved), 261(Silk), 681(silver and Platinum), 685(lead), 686(zinc)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SITC 041(wheat, unmilled), SITC 061(sugar and honey), SITC 263(cotton), 321(coal, coke, briquettes), 331(crude petroleum), 421(fixed vegetable oils) 등에서 비

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서오린재’의 경우에는 북한은 SITC 551[essential oil and perfume; 특히 SITC 5511(essential oils, resinoids)], 661(cement, building products), 666(pottery), 672(iron and steel, primary forms), 673(iron and steel shapes), 841(clothing, non-fur)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품목으로는, SITC 629(rubber articles), 651(textile yarn and thread) 등이 있다.

‘생산주기재’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품목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에 북한이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품목들은 SITC 711(nonelectrical power machine), 715(metalworking machinery), 717(textile and leather machinery), 718(machines for special industries), 722(electric power machines) and 864(watches and clocks) 등이 있다. 특정한 사실은, 대부분의 기계류(SITC 711, 715, 717, 718, 722)의 수입 비중이 외채문제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에서 나타난 기술수준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리카르도재’에 대해서는 비교우위가 분명하게 나타난 세계전체 교역에서와는 다르게 비교우위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는 수출비중이 급감하여 상대적 수준에서만 비교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연자원과 직결된 상품을 사회주의권 국가에 중점적으로 수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핵서오린재’의 경우에는 비교우위가 분명하게 나타난 세계전체 교역에서와는 달리 오히려 비교열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주기재’의 경우에는 비교열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에 있어서 ‘핵서오린재’의 수출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주기재’의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거래에서 표준적인 기술수

준을 요구하는 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첨단기술의 상품은 주로 수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북한이 '리카르도재'에 비교우위를 갖는 수준에서 '헥서오린재'에 비교우위를 갖는 단계로의 전환 과정에 있으며, '생산주기재'에 비교우위를 갖는 수준까지는 거리가 있다는 1986년 이전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합영법을 통해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노력이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리카르도재'의 주요 품목 중에서 북한은, SITC 054(vegetable, fresh & simply preserved), 261(silk), 681(silver and platinum), 685(lead), 686(zinc)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며, SITC 041(wheat, unmilled), SITC 061(sugar and honey), SITC 071(coffee), 263(cotton), 421(fixed vegetable oils) 등에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다른 점은 SITC 321(coal, coke, briquettes), 331(crude petroleum)에서 비교우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연료부문에 대한 북한의 대사회주의권 의존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헥서오린재'에 속한 주요 품목들 중에서는 SITC 551(essential oil and perfume), 672(iron and steel, primary forms)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1(textile yarn and thread), 691(cotton fabrics, woven) 등에서는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에서 나타난 결과는 세계전체와의 교역에서 나타난 결과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SITC 666(pottery), 673(iron and steel shapes), 841(clothing, non-fur), 851(footwear) 등에서 비교우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SITC 691(metal structure and parts)에서의 비교열위는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에서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도자기류(SITC 666), 강철판(SITC 673), 비모피의류(SITC

841), 신발류(SITC 851)의 수출은 주로 사회주의권 국가에, 철골구조물(SITC 691)의 수입은 주로 자본주의 국가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생산주기재’에서 북한은, 모든 품목에서 비교열위를 갖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세계 전체와의 교역에서는 뚜렷한 비교열위를 갖지 않았던 SITC 581(plastic materials), 726(electro-medical X-ray equipment), 729(electrical machinery)에 비교열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 전체와의 교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에서도 주요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북한이 안고 있는 외환문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하며 동시에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선진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추진하였던 합병법이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3) 1991년 이후

1991년 이후의 북한무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RCA지수를 통하여 분석하는데 있어서 초점은, (1) 1991년 12월에 발표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가 북한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왔는가, (2) 소련을 비롯한 구사회주의권 붕괴는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3) 경제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물자부족 현상, 특히 외화난이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 (가) 소비재와 생산재

세계전체와의 교역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소비재부

문에서 분명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생산재 관련 상품군에서는 상대적으로만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소비재부문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비해 수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생산재에서는 수입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외화난으로 인하여 생산재의 수입은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3> RCA지수 분석결과: 1992~1995

상품군	종류	세계전체와의 대외무역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대외무역			
		1992	1993	1994	1995	1992	1993	1994	1995
1. 소비재	x	2.84	2.68	2.38	3.15	2.61	4.16	3.05	3.49
	m	0.59	0.41	0.46	0.43	0.52	0.41	0.46	0.43
	w	4.84	6.52	5.20	7.31	5.03	10.06	6.77	7.41
2. 생산재	x	0.83	1.31	1.23	0.89	0.83	0.77	1.04	0.90
	m	0.59	0.87	0.59	0.53	0.76	1.03	0.72	0.62
	w	1.41	1.51	2.10	1.69	1.09	0.75	1.44	1.46
3. 리카르도재	x	0.61	0.70	0.59	0.57	0.63	0.78	0.51	0.46
	m	2.06	2.02	1.98	1.85	0.90	0.99	1.14	1.20
	w	0.30	0.35	0.30	0.31	0.70	0.79	0.45	0.38
4. 헉서오린재	x	1.53	1.46	1.29	1.23	1.49	1.47	1.29	1.23
	m	0.88	0.90	0.97	0.84	1.22	1.18	1.26	0.97
	w	1.73	1.62	1.33	1.47	1.22	1.25	1.03	1.27
5. 생산주기재	x	0.32	0.35	0.59	0.56	0.33	0.41	0.72	0.56
	m	0.61	0.50	0.57	0.53	0.93	0.76	0.67	0.60
	w	0.53	0.70	1.03	1.06	0.36	0.54	1.08	0.92

출처: 유엔의 대외무역통계,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참조.

소비재에서의 주요 품목 중에서 북한은, SITC 841(clothing, non-fur)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비모피의류의 수출은 소비재군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에서는 물론이고 북한 수출 전체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비교열위가 나타나는 품목들로는, SITC 554(soaps,

cleaning products)가 있으나 거래량이 적어서 소비재군의 RCA지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생산재군에서의 주요 품목들을 살펴보면, 북한이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은 SITC 661(cement, building product), 672(iron and steel, primary forms), 674(iron, steel universals, plate, sheet), 685(lead), 686(zinc), 724(telecommunications equipment) 등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열위를 갖는 품목들은 SITC 712(agricultural machinery), 715(metalworking machinery), 717(textile, leather machinery), 718(machinery for special industries)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농업용 기계류(SITC 712)는 새롭게 비교열위를 갖는 주요 품목으로 등장하였으며 통신장비(SITC 724)는 새롭게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에서는, 북한이 세계전제와의 교역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비재부문에서는 분명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생산재 관련 상품군에서는 상대적으로만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비해 소비재부문에서는 수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생산재에서는 수입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세계전제와의 교역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지만 소비재의 수출과 생산재의 수입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구소련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는 비사회주의권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비재군에서는 북한이 841(clothing, non-fur)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비모피의류(SITC 841)가 북한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당국의 임가공사

업을 중심으로한 수출전략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수입에 있어서는 세계류(SITC 554)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뚜렷한 비교열위를 보여 주지는 않고 있다.

생산재군의 주요 품목에서는 북한이 세계전체와의 교역에서는 부각되지 않은 몇 가지 품목에서 비교열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품목들로는 SITC 719(nonelectric machines), 723(electric distributing machinery), 726(electro-medical X-ray equipment) 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계류의 자본주의권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만 몇몇 기계류(SITC 715, 719, 726)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입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겪고 있는 외환부족 사태가 생산재의 수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 (나) 기술수준

먼저 세계전체와의 교역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자. 북한은 '리카르도재'에서 분명한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리카르도재'의 수출비중이 감소함으로써 더욱 두드러진다. '핵서오린재'의 경우에는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입비중은 1980년대 후반에 비해 증가하였다.

'생산주기재'와 관련된 RCA지수를 살펴보면, 그 동안 계속해서 비교열위를 보여 주다가 1990년대 중반에 와서 상대적인 비교우위('순효과'지수( $w$ )가 1보다 조금 크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전파되는데 점을 고려했을 때, '순효과'지수의 크기가 점차 증가해 1990년대

중반에 와서는 미미하지만 1보다 크게 나타난 현상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된 이유는 먼저 수입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수입감소 현상은 북한의 외채문제에서 주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이 부문에서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합영법 발표 이후 추진되어온 대외개방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합영법과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로 대표되는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이 선진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심화되어온 경제난으로 인하여 수출 여력이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합작사업이나 임가공무역을 통한 수출 증대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마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카르도재’에 포함된 주요 품목중에서 북한은, SITC 261(silk), 681(silver and platinum), 685(lead), 686(zinc)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SITC 041(wheat, unmilled), 047(meal or flour, non-wheat), 061(sugar and honey), 071(coffee), 263(cotton), 321(coal, coke, briquettes), 331(crude petroleum), 421(fixed vegetable oils) 등에서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의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에 와서 밀의 수입 비중이 오히려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북한이 직면한 외화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헷서오린재’의 주요 품목들 중에서는, SITC 661(cement, building products), 672(iron and steel, primary forms), 724(telecommunication equipment), 725(domestic electric equipment), 841(clothing, non-fur), 851(footwear)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통신장비(SITC 724)와 국내용 전기장비(SITC 725)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새롭게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이다. 북한이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품목으로는, SITC 554(soaps, cleaning etc),



651(textile yarn and thread), 652(cotton fabrics, woven), 653(woven textiles, noncotton), 655(special textile, etc) 등이 있다. 핵서오린상 품군에 속하는 주요 품목들의 비교우위 변화추이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현상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품목들의 구성과 성격이 개선된 것이라고 하겠다. 저급 기술수준을 요하는 합성수지, 도자기, 강철틀 등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전자·전기제품이나 직물류 등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생산주기제’의 주요 품목중에서 북한이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품목들은 SITC 512(organic chemicals), 712(agricultural machinery), 715(metalworking machinery), 717(textile and leather machinery), 718(machines for special industries), 864(watches and clocks) 등이 있다. 특징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기계류(SITC 711, 715, 717, 718, 722)의 수입 비중이 외채문제가 악화된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경제난으로 인하여 첨단 기계장비의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류(SITC 712)는 1990년대에 들어와 수입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가죽 가공기계(SITC 717)의 비중도 최저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른 기계류의 수입 비중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농업기계류의 수입 증대는, 북한당국의 당면한 식량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식량문제 해결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북한이 세계 전체를 상대로 무역을 하는 경우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자연자원의 비중이 큰 ‘리카르도제’에 대한 비교우위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국가만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경우에 비교열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리카르도

재의 수입이 사회주의권에 집중된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핵서오린재'의 경우에는 비교우위가 분명하게 나타난 세계 전체와의 교역에서와는 달리 비교우위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핵서오린재의 수입이 자본주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생산주기재'의 경우에는 비교열위가 상대적으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비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북한이 자연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상품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 수준에서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상품들에 비교우위를 갖는 단계로의 전환 과정에 있으나, 외화난을 중심으로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제품들을 제대로 들여오지 못함에 따라 기술발전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여 선진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던 북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리카르도재'군에 있는 주요 품목들의 RCA지수를 보면, 북한은 자본주의권 국가와의 교역에서 SITC 261(silk), 321(coal, coke, briquettes), 681(silver and platinum), 685(lead), 686(zinc) 등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SITC 041(wheat, unmilled), 071(coffee), 263(cotton), 421(fixed vegetable oils) 등에서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현상은 '리카르도재'군에서 원자재부문(SITC 681, 685, 686)의 수출비중이 1990년대 들어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총수출의 저하로 연결되어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핵서오린재'군의 주요 품목에서 북한이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은 SITC 629(rubber articles), 661(cement, building products), 724

(telecommunication equipment), 725(domestic electric equipment), 841(clothing, non-fur) 등이 있다. 북한이 비교열위를 갖는 품목으로는 SITC 651(textile yarn and thread), 652(cotton fabrics, woven), 653(woven textiles, noncotton), 655(special textile etc), 672(iron and steel, primary shapes), 673(iron and steel shapes)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철강재(SITC 672)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까지 비교우위를 보이다가 비교열위를 갖는 품목으로 바뀌었다. '핵서오린'상품군의 RCA 지수에서 비교우위가 불분명하게 나타난 이유는, 非綿織물류(SITC 653)와 특수직물류(SITC 655)와 함께 몇 가지 품목의 비교우위가 불분명한데 있다. 특히 북한의 대자본주의 국가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철(SITC 671)의 비교우위가 애매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차(SITC 732)의 경우에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RCA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주기재'군의 주요 품목에서 북한은, 세계전체를 대상으로한 교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품목에서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1990년까지 비교열위를 보였던 SITC 729(electrical machinery)에서 상대적(순효과의 측면에서)이지만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 전체와의 교역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주요 기계류(SITC 712, 715, 717, 718, 722 등)의 수입에서의 RCA지수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도 북한은 첨단기계장비의 수입에 있어서 사회주의권 국가들보다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과 비교하면, 농업용 기계류(SITC 712)와 섬유·가죽 가공기계(SITC 717)<sup>105</sup>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계류(SITC 715, 718, 722, 723, 726, 729) 수입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105) 특히 이들 두 품목의 수입은 주로 비사회주의 국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면서 추진하였던 선진 자본과 기술 및 장비의 도입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류(SITC 712)와 섬유·가죽 가공기계(SITC 717)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당국의 식량문제 해결 의지와 임가공을 통한 경제난 극복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IV.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전망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은 대외경제정책의 한 부분을 구성하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코르나이<sup>106)</sup>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와 교역을 할 때 수입에 대한 욕구가 크고(import hunger) 수출에는 소극적이며(export aversion) 외채가 증가하는 경향이(propensity to indebtedness) 있다고 한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끼리의 교역에서는 수출을 선호하고(export preference) 경상수지의 균형을 추구(pursuit of a zero balance)한다고 한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게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산되는 최고수준의, 최신 기계와 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들이 수출에 소극적인 이유는 자본주의 국가의 요구에 질적 수준을 맞추는 문제와 납기일을 준수하는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결과로, 수입지출이 수출수입을 초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거나 외자를 동원해야 하는데,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외국 기업이나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는 형식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외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자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외채에 대한 강한 저항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힘 중에서 어느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장기적

106)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45~355.

으로 외채를 상환하여 외채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채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노력은 종종 수출 증대보다는 수입대체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국산품의 사용을 강제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종종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경제건설이라는 정치적인 목표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또한 외채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고질적인 물자부족이라는 경제적 악순환 현상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수입을 충당하거나 외채를 갚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출혈 수출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모든 물자에 대한 초과수요 현상이 일반화 될 것이며, 결국은 만성적인 물자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1970년대 초, 북한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서방 선진국가들에게서 수입하기 위해 서방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차관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하게 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는 외채문제가 대두되었다. 수입욕구를 따라 잡지 못한 수출능력으로 인하여 외채가 증가하게 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된 것이다.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먼저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중시정책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북한의 무역확대정책은 수출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서 경제 전반에 걸쳐 물자부족현상을 심화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합영

법' 제정과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면서 본격화된 외자유치정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신년사(1998년)에서 '무역제일주의'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신헌법 발표 이후 개정헌법의 내용<sup>107)</sup>을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여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라는 공동노선(1998)을 통해서 개혁·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무역 증시정책을 포기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특히 "외화가 있어야 경제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서 대외무역에만 치중하는 것은 옳은 방도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립경제건설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표 4-1> 북한의 대외무역 및 개방정책 전개 과정

시기	70년대 초반	70년대 중반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	1998년		
대외 무역 정책	수입확대 수출부진	외채문제 발생	무역(수출)확대정책						
								무역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퇴조
								* 경제전반에 걸친 물자부족현상 심화	
								외자유치정책	
			합영법 제정 (1984)	나진선봉 자유경제 지대설치			제도적 보완 노력 *무역법, 새헌법 제정		
개방 정책	수입과 대부분을 통한 폐쇄적 개방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제한적 개방			*자주·자립적 경제건설노선 강조 *중공업 우선정책			

이는 물자부족 현상을 심화시킨 수출 확대정책의 한계를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화벌이 사업이 과열되면서 발생한 사회일탈 현상

107) 신헌법(1998.9.5)에서 북한은 사회협동단체들이 국가의 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대외무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외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필요성을 느낀 북한당국이 수입대체정책을 통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이라는 정치적인 목표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1>은 북한의 대외무역 및 개방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다름대로 일관성 있게 그들 방식의 수입대체전략을 구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력갱생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외국의 선진기술을 들여와 ‘주체적’으로 국산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식’ 수입대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주성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연결되는 이러한 수입대체정책은 대체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수입대체를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선진 설비와 기계의 수입을 추진하면서 외채문제가 발생하자, 수출확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수출확대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되자, 북한당국은 수출중시정책을 포기하고 과거 체제로의 복귀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자립경제건설’을 위한 수입대체전략의 한계를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당국이 당장 자립경제건설노선을 포기할 것이라고, 또는 자립경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대외무역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립적경제건설노선을 단기간내에 수정하기는 힘들 것이고,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와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될때 보다 적극적인 대외무역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성장전략을 수출지향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까지도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북한이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부를 정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1. 대외무역정책의 결정요인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대내적인 요소와 대외적인 요소로 구별할 수 있다. 대내적인 요소로는 경제발전계획의 추진정도와 외환사정을 비롯한 국내 경제상황과 국가의 위상 강화나 체제안정 등의 정치적 동기를 들 수 있다. 대외적인 요소로는 주변 강대국(특히 소련과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와 세계정치·경제의 정세변화 및 남한의 정치·경제적인 상황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이 변화되어 온 것이다.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북한 내부의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 가. 대내적인 요소

대내적인 요소는 크게 경제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경제발전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발전 목표의 달성 여부와 외채문제,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물자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왜곡되어가고 있는 산업구조의 개선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나 내부 정치상황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자신감 정도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1) 경제적인 요인

(i) 경제발전계획 추진 실적: 북한이 대외무역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도입하고 기술과 설비를 개선하는데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대외무역은 경제발전계획에 필요한 물자를 제때에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당연히 수입이 우선시 되었으며,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1980년대에 들어 외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채 상환을 위한 외환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수입과는 별도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북한의 무역실적을 살펴보면, 경제개발계획 실적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계획 실적과 수입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4-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계획기간중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조정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입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계획을 앞당겨서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수입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경제계획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 설정한 조정기간(1994~1997) 동안에 수입이 증가하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수입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구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이 구소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무역제일주의를 제창하면서까지 수출을 독려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경제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경제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수입수

요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확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북한의 경제계획기간과 수출입 증가율

경제계획	대외무역 관련 목표	경 과	수입(수출)의 평균증가율
제1차 7개년계획 (1961~1967)		계획기간 3년 연장	1962~1967 : 8.3%(10.9%)
3년간 연장 (1968~1970)			1968~1970 : 16.7%(5.1%)
6개년계획 (1971~1976)		계획을 1년반 앞당겨 완료했다고 발표	1971~1974 : 65.3%(33.6%)
조정기간 (1977)		실제조정기간은 2년반 (1975~1977)	1975~1977 : -13.5%(5.5%)
제2차 7개년계획 (1978~1984)	대외무역 증대		1978~1984 : 8.9%(8.0%)
조정기간 (1985~1986)			1985~1986 : 27.8%(9.1%)
제3차 7개년계획 (1987~1993)	무역액 3.2배 증가		1987~1993 : -1.7%(-4.8%)
완충기간 (1994~1996)	무역제일 주의 선언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	1994~1997 : -5.2%(-1.7%)
완충기간 연장 (1997)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음.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이 경제발전계획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앞으로 북한 당국이 새로운 경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케 한다. 또한 최근 북한당국이 무역제일주의를 철회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하게 된 배경도 대외무역의 기능 저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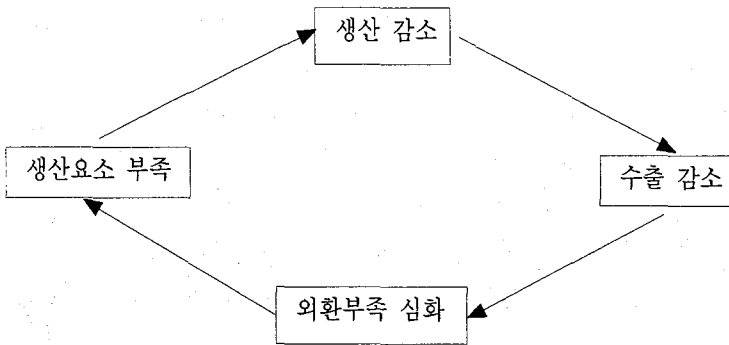
(ii) 외채문제: 197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북한의 외채문제는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 막아온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이 대외무역정책을 결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이기도 했다. 북한은 심각한 외채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공포한 이후, 여러 가지 관련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은 1991년 12월에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가 발표된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진선봉지역의 개발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합영법과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설치 등으로 나타난 북한의 외자유치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선진 자본과 기술을 도입, 경제 희생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는 여지없이 빛나가게 되었다.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당국의 노력은 외자유치정책과 함께 추진된 무역(수출)확대정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의 주요 과업중의 하나로 대외무역 증대를 설정한 바 있으며, 1987년 4월에 개최된 제8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주요 목표를 발표하면서 계획기간동안 무역액을 3.2배 증가시키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제3차 7개년계획 기간동안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오히려 20.9%가 감소하게 되었다. 1994년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북한은 이후 3년간을 완충기간으로 정하고 3대제일주의(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천명하였다.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무역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까지 북한은 대외무역의 확대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부터 1997년의 기간동안 무

역액이 16.1%가 감소한 것이다.

결국 외채문제로 인하여 경제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게된 북한이 외자유치와 무역확대정책을 통하여 외채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성장도 달성하려던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물론 북한의 무역실적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경제가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부족 현상을 개선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생산요소의 수입이 제약을 받게되었고 이는 생산요소의 부족현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생산요소의 부족은 다시 생산감소 현상을 악화시키며 생산량의 감소는 수출부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함정에 북한경제가 빠져 있는 것이다.<sup>108)</sup> <그림 4-1>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 북한경제의 악순환고리



108) 임강택, “북한 경제난과 남북협력: 식량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문제』 (1998. 9), pp. 50~55.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앞으로도 외환의 부족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능력에서 한계를 느낀 북한당국으로서는 외국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생산요소의 부족현상을 가능한 한 국내에서 해결하고자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가능한 한 많은 경제적 지원이나 투자를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최근에 나타난 북한의 대미협상전략과 남북경협이 선별적 확대 경향, 그리고 자력갱생을 새삼 강조하는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iii) 산업구조 개선: 한 나라의 수출 잠재력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능력,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수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전환 실태, 그리고 이들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실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생산능력은 8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연료와 원자재, 공장가동에 필요한 부품 등에서 심각한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공장의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졌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북한이 외국의 지원 등을 통해서 생산요소 부족현상을 일시적으로나마 극복하더라도 생산능력을 1980년대 말의 수준까지 복원시키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수준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전환 상황은, 북한의 무역에서 나타나는 비교우위 부문을 상품그룹별로 살펴본 결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III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낮은 단계에서의 경제구조 조정에는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보다 높은 단계로의 도약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자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상

품을 생산하는 단계로의 전환에는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 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단계로의 전환에는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주요 원인은 비효율적인 경제체제의 개혁 부진, 폐쇄적인 대외경제정책으로 인한 선진기술의 유입경로 차단, 그리고 외채문제에 따른 서방의 자본 및 기술 도입의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획기적인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경제구조의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수출 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국내산업 설비의 개선을 위한 자본재 도입실태와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신 설비의 도입현황을 들 수 있다. III장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수입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본재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첨단 기술이 내재되어 있는 기계류의 수입 비중이 외채문제가 악화된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본재의 도입 실적 부진은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의 수출실적을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으로서는 수출 잠재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수입여력을 확대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북한은 그들이 첨단 기계류를 포함한 자본재의 도입 통로로 삼고자 하는 나진-선봉자유무역경제지대의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며, 같은 이유에서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작사업을 추진하는 일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북한의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해 왔던 개혁·개방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체제안정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속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부담을 느낄 것이므로 한편으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혁·개방정책은 경제회생과 산업구조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경제적 동기의 비중과 정치적 안정 확보라는 정치적 동기의 비중의 크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그 폭과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정치적인 요인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정치적인 요인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지도부의 판단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자신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의 목표 중에서 체제의 안정적인 유지가 최우선시 되어 왔다.

1990년대 들어와 대외정세는 북한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소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에서 사회주의체제가 해체되었고, 소련 및 중국은 남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는 핵문제에 의한 비난여론이 강해지면서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된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사태전개를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구소련의 해체 이후 경제난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으며, 이런 와중에 김일성이 사망(1994.7.8.)하게 되자 북한당국은 체제유지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김일성 사후 북한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군부 중심의 비상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는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여 왔다.

체제와 정권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에서 비롯된 정권의 정당성 약화 현상을 해결하는 문제와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묵인하거나 허용하였던 개혁적인 조치로 인하여 파생되는 사회통제력 약화 현상을 극복하는 문제 사이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중앙 정부차원에서는 해결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유일한 식량공급원이 된 농민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에 제동을 걸기도 힘든 상황이다. 모든 생산단위에 허용되었던 외화벌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통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경제회생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북한당국의 의도도 체제유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당국이 경계하는 것은 자본주의화 바람을 타고 체제전환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현상이다.

북한당국은 최근 외화벌이 사업소를 정비하였으며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sup>109)</sup>이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sup>110)</sup>의 글을 통해서, 사상과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참된 강국은 자력갱생의 나라이다”라고 주장하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은 자립의 길 이외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헌법 개정 이후에 대내외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개혁·개방의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일축하였다. 또한 공동사설에서는 “우리에게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더 개혁할 것도 없고 개방할 것도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보고 개혁·개방하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를 되살리려

109) 노동신문 정론, 1998. 8. 22.

110) 노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논설, 1998. 9. 17.

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개혁·개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일차적으로 시장경제의 싹이 돋아나는 상황에서 체제불안 요소를 감지한 북한당국의 내부단속용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체제안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보다 폐쇄적인 과거 체제로 복귀하고 싶어하는 북한당국의 속내를 내보인 것이라 하겠다.

‘강성대국’이라는 글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이 당분간 군사력과 사상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앞으로 미사일 개발 등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때까지는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를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의 기초나 틀, 속도는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개혁정책이나 대외개방정책은 체제안정과 국가안보에 대한 지도부의 자신감의 크기에 따라서 그 속도나 폭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체제안정과 국가안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자신감은 주로 국내 경제상황 및 대외정세에 대한 판단에 의존하여 결정될 것이다.

#### 나. 대외적인 요소

대외적인 요소는 주변 강대국 특히, 소련과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와 세계 정치경제에서의 정세 변화 및 남한의 정치·경제적인 상황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와 주변국들의 정치·경제 상황은 북한의 내부 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에 영

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 북한의 무역실적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쳐 온 것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중국 및 구소련과의 정치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III장 1절에서 (구)소련 및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국가들과의 정치적 긴밀도가 대외무역에 매우 민감하게 반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당국은 경제계획 추진에 필요한 물자들을 중국 및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장기적인 협약 체결등을 통하여 미리 확보하였으며, 사회주의권 국가에게서도 확보하지 못한 물자들은 국제시장을 통해서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구입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온 중국 및 구소련과의 정치적 관계는 북한당국의 대외무역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중국 및 구소련과의 정치적 관계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주어 왔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중국과 소련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북한당국은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군사력 증대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보수적인 군부의 입장이 정책결정에서 더욱 강하게 반영될 것이다.

물론 국가안보에 대한 북한당국의 불안감이 반드시 보수적인 성향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표출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담보 받으려는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군사력 증대를 위해서는 선진 기술

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대외무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움직임은 무기수출이나 위조지폐 및 마약 수출과 같은 비정상적인 수단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대외무역이 강조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국이나 구소련과의 관계 악화는 경제적으로 대외무역 실적 저하로 직접 반영되고, 정치적으로는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여 군사력 확대 노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 및 외교관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방확대의 불가피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정권과 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보다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두 가지 필요성 사이를 오가면서 실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로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태도, 특히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선진국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미국과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일본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세력으로 인식해 왔다. 이에 따라 소련체제가 붕괴한 뒤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이다. 핵문제와 미사일 개발문제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협상장으로 불러 들여 평화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낸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sup>111)</sup> 또한 미국의 경제조치가 북한의 경제 회생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북경제제재 조치의 해제를 꾸준히 요구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가안보라는 정치적 목표와 경제적 지원 획득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은 북한의 경제회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일본과의 국교수립 역시 북한 지도부에게는 매우 절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으로서는 이래저래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남한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반도 재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어 북한의 모든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한내의 상황은 다른 주변상황과 결합하여 북한의 일반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어 온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 초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한의 경제발전을 접한 뒤, 서방의 선진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1970년대 초반 대규모 차관 등을 통하여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최첨단 기계장비를 도입하였으나, 수출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외채문제가 발

111) 부작용이 많이 노출된 수출증대에 한계를 절감한 북한으로서는 당분간 정상적으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도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경제지원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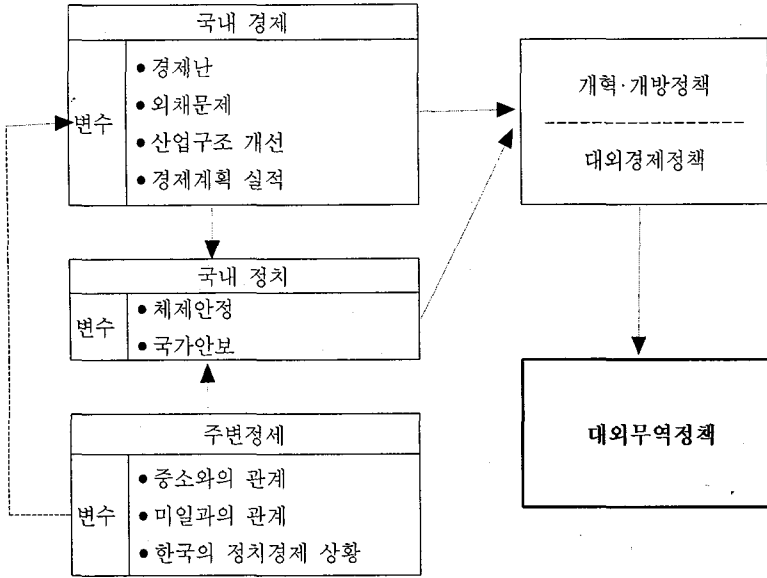
생하게 되었으며, 이때 발생한 외채문제는 이후 북한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결국 지나친 남한과의 체제경쟁이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의 遠因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1988년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온 남북 경제협력은 그 동안 점진적이거나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관계 강화에 도움을 주어 왔다. 특히 1994년 11월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이후 남북간의 교역은 2억불을 상회하여 중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으며, 1988년 대북 경제개방 조치 이후 1997년까지의 남북교역 총규모는 15억4천6백만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남한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1998년 들어 남북교역은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남북교역을 통하여 그 동안(1989년~1997년) 총 9.6억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한 사실과 북한의 심각한 외화난을 고려해 보면, 그 동안의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에 기여한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교역은 남한의 악화된 경제상황이 북한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물론 남한의 경제상황 악화는 다른 편에서는 북한당국의 체제유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일정부분 감소시켜주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외환위기를 자신의 자주·자립적 경제체제가 우월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예라고 선전하면서 자력갱생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대외무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떤 경로를 거치는 지를 <그림 4-2>에 요약하였다.

<그림 4-2>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결정 경로



## 2. 대외무역정책 변화 전망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는 작업은 북한당국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는 '수입대체전략'을 수정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립적 경제건설 노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그들의 경제성장전략을 중국과 같은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으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이 경제성장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여건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추측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현 체제 및 김정

일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온 경제난과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하여 체제유지에 심각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북한당국으로서는, 내부 통제력과 역량이 강화되어 국내에서의 불안 요인들이 해소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한 외부의 위협요소가 최대한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체제 및 정권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급진전되지 않고 있어 체제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이 기존의 '수입대체전략'을 버리고 '수출지향적인 경제발전전략'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겠다. 다만, 북한당국이 현재의 성장전략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여건이 성숙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북한이 단기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수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되었던 변수들이 각각 어떻게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개혁·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물자부족 현상으로 대표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확대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출능력이 제고되어 필요한 물자를 수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필요한 원자재를 구



입하여 국내 경제의 생산성과 생산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 바, 개혁·개방의 과감한 추진을 통한 대외 무역 확대정책이 필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당국이 묵인해 온 농민시장의 활성화 현상이나 외화벌이 사업의 과열 현상은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이 내부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경제난 극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현상이 대외무역정책에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당국은 자본주의 바람이 일반 주민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 확대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다.

북한의 국내 정치상황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여 준다. 김정일정권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소련이라는 커다란 바람막이를 상실한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와 국가안보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체제유지를 최고의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그들이 위험부담이 큰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북한당국이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의 정당성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개방정책 확대의 필요성 역시 공존하고 있다.

물론 최근 북한당국이 발표한 글들을 보면, 개혁·개방의 확대 가능성이 일축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보다 폐쇄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폐쇄적인 정책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북한당국으로서는, 그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실

질적으로는 기존의 개방의 폭을 유지함으로써 최대한 실리를 얻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북한이 미사일(인공위성?) 발사실험 성공에 크게 고무되어 있으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용주의에 입각한 개방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당국은 개혁·개방의 여파가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이나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주변상황에서도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외교적 고립의 심화현상은 북한의 체제안정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태도가 강화될 것이나,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는 개방적인 정책의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미국 및 한국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과 함께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초래된 세계경제의 침체와 남한의 경제상황 악화는,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교역의 감소를 유발하여 북한의 경제회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으로부터의 위협이 감소되었다고 인식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하면, 향후 북한당국은 정치·외교적으로는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유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대외무역정책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추진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당국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i) 기본방향: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용을 보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무역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은 당분간 무역확대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내부 경제환경의 정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소규모로 난립한 외화벌이사업소를 정비하고 대외무역에서 당의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는 개혁·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sup>112)</sup>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내부 단속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변화한 주변환경에 적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대외무역을 추진하려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제도정비와 전문적인 무역종사자의 육성에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무역법을 발표(1998.3.25)한 바 있으며 '무역일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출능력 강화를 통한 무역확대가 북한의 대외무역 정책의 주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경제난 극복에 필수적인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sup>113)</sup>할 것으로 보이며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를 점차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폭과 속도는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112) 북한은 청년동맹기관지 청년전위 최근호 사설에서 “오늘 우리의 계급투쟁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황색바람을 철저히 막아내고 짓부기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사상문화가 내부에 유입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연합통신(1998.11.27)에서 재인용.

113) 김정일은 1998년 10월 22일 자강도 희천시의 압록강타이어공장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 무역을 하고있는 조건에 맞게 기업소 경영관리는 사회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하고 무역은 자본주의나라들과 상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노동신문 1998. 11. 8.)

(ii) 개방정책: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노력을 계속할 것이나 개방지역의 확대에는 당분간 소극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점차적으로 개방 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장기적으로는 개방의 범주를 확대하고(신의주·원산·남포 등지를 보세가공지역으로 추가 개방하고, 백두산·나선지역·금강산·묘향산 등지를 관광지로 개발·개방), 나진·선봉지역을 비롯한 개방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일차적으로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경제난 극복의 걸림돌로 판단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완화시키고, 외화난 해소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견되는 대일 수교를 통한 배상금 획득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당국이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개방을 보다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분간은 내부정비에 주력하면서 개방정책의 확대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iii) 남한과의 경제협력: 남한의 외환위기로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이 위축되었지만, 남한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기업들의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으며, 최근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동안 외국 자본 유치에 실패한 북한이 남한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지 않고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투자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식 정경분리정책에 기초하여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경제적 실리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남 강경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돌발사건으로 인한 경제협력사업이 냉각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해 있다. 결

국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남한정부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정부로서는 안보강화와 경협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관성과 인내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북한은 남한 기업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실리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과의 협력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V. 결 론

1990년부터 계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성장은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되어온 결과로, 북한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북한경제의 회생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데 있다. 특히 경제난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물자와 외화부족의 심화 현상은 북한경제가 현재 고질적인 악순환 함정에 빠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한 부분에서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어느것 하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추진했던 수출확대정책도 부작용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으며, 외화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외자유치정책도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북한당국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북한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화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며, 외화자금 확보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출증대와 외자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 갖는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체제안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개혁·개방정책에 소극적인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폐쇄주의적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무역의 역할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는 초창기에는 단순히 부족한 부분을 가까운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쉽게 충당하는

정도로 인식하였으나, 중소분쟁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지원은 축소된 반면 경제규모의 확대로 수입수요는 증가하게 되자 점차로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보다 구체화되어 온 대외무역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하고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게된 1990년대에 와서는 절박성마저 띠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출증대와 외자도입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한 국제환경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변신을 꾀하게 되었다. 대외무역이 북한경제의 생존을 위한 통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를 건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권유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쇄정책의 합리화를 모색하고 있다. 개혁·개방을 동반한 대외무역 확대정책을 통해 경제회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정권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우선되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개혁·개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북한의 상층부에는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불가피한 개혁·개방 조치를 강구하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체제에 위협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날로 악화되어 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수출증대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수출제일주의로 대변되는 수출 최우선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에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설치(1991)하였으며, 새로운 무역체계를 도입(1992)하여 모든 행정단위나 기업소 및 각급 기관에서 필요한 외화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하였고, 무역법을 제정(1998)하여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무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새헌법(1998.9.5)에서는 사회협동단체들이 국가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율적으

로 대외무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김정일이 현지도도를 하는 자리에서 “사회주의시장이 없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 무역을 하고있는 조건에 맞게 기업소 경영관리는 사회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하고 무역은 자본주의 나라들과 상대하여 하여야 한다”<sup>114)</sup>고 주장하면서 무역의 활성화를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 최우선 전략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폐쇄적인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수출 최우선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혁·개방을 통한 외국의 자본이나 기술의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수출기반이 확보, 강화되어야 하는데도 체제안정이라는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개방정책을 매우 소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립경제건설을 정당화시키는데 급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한계는 수입부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 확대에 필요한 원자재나 연료 등의 수입재원을 북한은 합영·합작사업을 통하여 충당하려 했으나 성과가 미미하자 외화 획득을 위하여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마저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15)</sup> 북한의 합영·합작사업 역시 적절한 개혁·개방이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수출 최우선 전략이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개혁·개방을 확대하면서 북한지역내의 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114) 노동신문, 1998.11.8.

115)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사회」, (서울: 내외통신사, 1995), pp. 98-106.



경제난 극복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구사회주의권 시장이 붕괴된 1990년대 초에 급락한 이후 197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을 무역상대국가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에 들어와 구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그 여파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자본주의 국가,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서방 선진국과의 교역에서는 별다른 실적을 보여 주지 않고 있어서 북한이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선진 기술과 장비를 들여오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개방정책이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구소련 체제의 붕괴로 북한의 대외무역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특히 그 동안 소련에 의존해왔던 연료의 공급이 급감한 것은 북한의 경제난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수출입 품목구조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수출에서 비도파 의류제품을 비롯한 기타 제조품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기존의 주요 수출품목이었던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 특히 건자재 및 철광석과 철강제품의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주요 수출품이었던 철강의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기타 제조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섬유제품의 임가공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이 부분이 새로운 수출원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수입에 있어서는 1970년대 초반 급증했던 기계·설비류의 비중이 외채문제가 발생한 1970년대 중반 이후 격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외채문제가 북한경제의 구조개선과 산업시설의 노후화 개량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

실은 1990년대에 위탁가공용 섬유원자재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임가공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북한이 경제난이 악화될수록 임가공무역에 더욱 집착할 것임을 예견하게 한다.

RCA(현시적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북한의 무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은 소비재보다는 자본재에 대한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이전까지는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비재품을 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수출하고 생산과 투자에 필요한 생산재는 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이 단순한 자본재에 대해서는 비교우위를 보이지만 최신 기계류에 대해서는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을 전후하여 최신 기계류에 대한 수입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하여 수입 여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RCA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발견된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이 낮은 단계에서의 경제구조 조정에는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보다 높은 단계로의 도약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자연자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단계로의 전환에는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선진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단계로의 전환에는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주요 원인은 폐쇄적인 경제정책과 외채문제에 따른 서방의 자본 및 기술 도입의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본재와 첨단 기계장비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북한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또 다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재

의 수입실적 부진 현상은 북한의 수출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난 극복과 경제난 극복의 가능성을 더욱 줄어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외채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하였던 북한의 개방정책은 구소련의 붕괴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출확대정책과 함께 북한경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수출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수출 잠재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수입여력을 확대하는 일이 북한에게 매우 시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자본재의 도입 통로로 삼고자 하는 자유경제지대의 활성화에 더욱 진력할 것이며, 같은 이유에서 외국기업과의 합영·합작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앞으로 경제희생을 위한 탈출구로 대외경제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체제안정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속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부담을 느낄 것이므로 한편으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북한의 수입대체전략이 이미 한계를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는 중국과 같이 수출지향적인 경제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북한이 당분간은 수입대체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상을 기초로 북한 지도부의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과 대외무역이 북한에서 갖는 기능,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제·정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북한이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는 대외무역정책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방향: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을 보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무역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경제난 극복에 필수적인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를 점차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폭과 속도는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2) 개방정책: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노력을 계속할 것이나 개방지역의 확대에는 당분간 소극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점차적으로 개방 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일차적으로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북한당국이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개방을 보다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분간은 내부정비에 주력하고 개방정책의 확대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외부세계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3) 남한과의 경제협력: 남한의 외환위기로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이 위축되었지만, 남한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기업들의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어 남북경협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동안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외국자본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남 강경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돌발사건으로 인한 경제협력사업이 냉각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해 있다. 결국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남한정부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노력은 계속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빠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것 또한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능한 한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이를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상겸. 「북한의 교역현황과 대외경제정책」.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0.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 나탈리아 바자노바. 「기로에 선 북한경제」.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 사회」. 서울: 내외통신사, 1995.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무역제도 및 상사디렉토리」.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1994.
- \_\_\_\_\_.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993.
- \_\_\_\_\_.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994.
- \_\_\_\_\_.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995.
- 북한대외협력추진위원회.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 서울: 북한대외협력추진위원회, 1996.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0.
- \_\_\_\_\_.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85.
- 최신림. 「북한의 무역구조」. 서울: 산업연구원, 1991.
- 최주환. 「북한경제론」. 서울: 대왕사, 1992.
- 통일원. 「'92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2.
- \_\_\_\_\_.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절차」. 서울: 통일원, 1997.

- 통일원.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 서울: 통일원, 1997.
- Balassa, B.,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NO. 33, 1965.
-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COMECON Uniform Trade Classification*, I. D. E. Statistical Data Series No. 4., Tokyo: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Kostinsky, Barry L., *Description and Analysis of Soviet Foreign Trade Statistics*, FER-No. 5,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July 1974.
- Marer, Paul, *Soviet and East European Foreign Trade, 1946~1969*,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2.
- United Nations, *Draft Conversion Key Between the United Nations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and the Standard Foreign Trade Classification of 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nf. Eur. Stats/WG. 38/2, Geneva: United Nations, 1972.

## 2. 논 문

- 권오홍.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체계.” 「통일경제」. 1998.6.
-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89.

- 김달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자.”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89.9.
- 김복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88.7.
- 김수용.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의 우위성에 대하여.” 한세정책연구원. 「북한경제」, 1996.9.
- 김일성.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 1984.1.25~27).” 「김일성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무역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결론, 1994.7.6).”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 회의).” 「김일성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_\_\_\_\_.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 보고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6차회의, 1953.12.20~22).”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 I 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_\_\_\_\_.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 1972.12.25~28).”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인민경제의 계획규율을 강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



- 은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 19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9.12.12). 「김일성저작집 3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일성. “정무원사업을 개선하며 경제사업에서 5대과업을 틀어쥐고나 갈데 대하여(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4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조선 로동당 3차대회(1956.4.23~28.)에서 진술한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조선 로동당 5차대회, 1980.10. 10).”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1992.12.14).”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등을 둘러싼 최근 움직임.” 「북한뉴스레터」.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8.
- \_\_\_\_\_. “북한, 나진-선봉지구 경제활성화 노력강화.” 「북한뉴스레터」.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7.
- \_\_\_\_\_. “북한, 외자도입위한 움직임 활발.” 「북한뉴스레터」.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7.
-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특징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4.
- 리주연.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와 조선 로동당 중앙 검사

-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 대한 토론(조선 로동당 4차대회, 1961.9.)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II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이지형. “나진-선봉지대 외국인 투자진출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1997.8.
- 임강택. “북한 경제난과 남북협력:식량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문제」 (1998.9).
- 임을출. “9.9 김정일新체제 출범이후의 남북 경험 동향.” 「통일경제」. 서울: 경제사회연구원, 1998.10.
- 전일춘,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86.
- 최경희. “현시기 대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 최영옥.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 최원철. “합영, 합작을 잘하는것은 대외경제관계 발전의 중요 요구.”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 최정근,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대외무역.”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84.
- 최주환. “자립명분 돈벌려다 부패만 번져.” 「WIN」. 서울: 중앙일보사, 1996.
- 한수길.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 「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91.
- 조강일.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방침.”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Amann, R., "Some Approaches to the Comparative Assessment of Soviet Technology: Its Level and Rate of Development." in Amann, R., and Davies, R. W. (eds.), *The Technological Level of Soviet Indust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Hill, M. R. and McKay, R., *Soviet Product Quality*. New York: Martin's Press, 1988.

Holzman, F. D, "Some Theories of the Hard Currency Shortages of Centrally Planned Economies." in *Soviet Economy in a Time of Change*, vol. 2.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s, October 10, 1979.

Lim, Kang-Taeg. "North Korea's Foreign Trade 1962~1992." New York: SUNY Albany, 1996.

### 3. 기 타

「경향신문」.

「노동신문」.

「조선신보」.

「조선일보」.

「중앙통신」.

*Far Eastern Affairs*, 1986.

*North Korea's Foreign Trade, 1962~1992*.

*Vneshniaia torgovlia SSSR*.

## 最近 發刊資料 案内

###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米·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인식조사 결과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著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共著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著	4,5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著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著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共著	발간예정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著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著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著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著	7,500원
<b>■ 북한인권백서</b>			
	북한인권백서 1996	옥대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 외 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b>■ 연례정세보고서</b>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b>■ 학술회의 총서</b>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b>■ 통일문화시리즈</b>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b>■ 논총</b>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b>■ Translation Series</b>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를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전화: 901-2559, FAX: 901-2547)

